

# 滄溪의 시문과 학술에 대한 일고찰

沈慶昊\*

- |                      |                      |
|----------------------|----------------------|
| I. 서언                | IV. 창계의 학술 규모와 학문 방법 |
| II. 창계의 科宦歷·學問工程과 시문 | V. 결어                |
| III. '因文入道'와 '契緊精熟'  |                      |

## • 국문초록

滄溪 林泳(1649~1696)은 17세에 李端相에게 수학하기 시작한 후, 13년 연상의 외숙 趙聖期, 金昌協 등과 학문적으로 깊이 토론하는 한편, 소론의 朴世采, 南九萬과도 가까이 지냈다. 임영은 젊어서 경전 대문과 朱子 註와 大全本 小註까지 숙독하고 主一工夫를 專習했다. 동시에, 駢文을 익히고, 『事文類聚』를 열람하여 典故에 밝았다. 1688년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이후 이조참의에 이르기까지 知製敎를 兼帶하면서 館閣文을 다수 製述했다. 이로써 창계는 일생 駢文, 程式詩, 述志詩 등에서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 임영은 '因文入道'의 학자로 손꼽힌다. 이는 詞章에 주목했지만 사장에 매몰되지 않고 사장을 도구로 삼고 사장을 극복하고 도학을 닦았다는 뜻이다. 본고는 『창계집』 수록의 시문과 경해, 『辛酉日錄』 등의 과거 관련 기록을 통해 임영의 격물치지와 하학상달의 공부법 확립과 그 문학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滄溪, 林泳, 李端相, 趙聖期, 金昌協, 朴世采, 南九萬, 李珥, 程復心, 知製敎, 館閣文, 駢文, 「義勝記」, 因文入道, 『陸宣公奏議』, 『辛酉日錄』, 『讀書筭錄』

\* 고려대 명예교수

## I. 서언

滄溪 林泳(1649~1696)<sup>1)</sup>은 17세에 靜觀齋 李端相(1628~1669)에게 수학하기 시작한 후, 玄石 朴世采(1631~1695), 藥泉 南九萬(1629~1711)과 가까이 지냈고, 13년 연상의 외숙 拙修齋 趙聖期(1638~1689), 農巖 金昌協(1651~1708) 등과 학문적으로 깊이 토론했다. 창계가 부제학으로 재임하던 1696년(숙종 22) 2월 6일에 48세로 捐館하자, 아우 林淨은 遺文을 필사하여 崔錫鼎과 金昌協에게 산정을 부탁해서 1705년 무렵 원집 26권 부록 1권 합 27권 13책의 정고본 『滄溪先生文集』을 이루었다. 임정은 1706년 가을 南原府使에서 淸道郡守로 옮긴 후 간행을 서둘러, 1707년 9월에 김창협이 서문을 받았다. 또한 1708년(숙종 34) 5월에 남구만의 서문도 받아 8월에 27권 14책의 간역을 마친 후 스스로 발문을 지었다. 淸道 남쪽 磧川 승사 곁에 장판각을 짓고 판목을 보관했다.<sup>2)</sup>

남구만은 「창계집서」에서, 창계의 글 가운데 講學의 工程을 논한 내용에 주목하고, ‘옛사람의 글로 말한 한 자’라고 현창했다.<sup>3)</sup> 한편 김창협은 1707년 9월 서문을 작성한 직후 李禧朝에게 서찰을 보내, 말뜻이 좋지 못한 곳을 지적해달라고 요구했다.<sup>4)</sup> 김창협은 서문에서 창계의 학문, 저술, 언론정치에 대해 이렇게 개괄했다.<sup>5)</sup>

- 1) 창계의 본관은 羅州, 자는 德涵이다. 1692년(임신) 會津으로 돌아와 滄溪草堂을 짓고 거처했으므로, 사후에 후학들이 滄溪라고 호칭했다. 『滄溪集』 ‘부록보’(본래 林焚澤님 소장)에 창계의 아우 林淨 찬술 「滄溪先生年譜草」, 朴泰初(1706~1762) 찬술 「滄溪先生家狀草」가 전한다.
- 2) 초간본은 규장각(奎4121, 古3428-301) 등에 있다. 원집은 26권, 부록(권27) 1권이다. 권두에 林淨이 1708년에 지은 跋이 있다. 권27은 附錄으로, 致祭文 1편, 祭文 5편, 挽詩 16편이다. 1994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滄溪集』을 林焚澤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여 영인 간행했다. 〈兵制說〉 1편, 〈辛酉日錄〉, 國文親筆簡札이 拾遺로, 年譜, 行狀草, 神道碑銘 및 崔錫鼎 撰 辨序 등이 附錄補로 첨부되었다. 한국문집총간의 저본은 1708년 초간 규장각장본(奎4121)이다. 박현순, 『창계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0.
- 3) 南九萬, 『滄溪先生文集』 卷末, 「滄溪集序」. 본고에서 주로 활용하는 『滄溪先生文集』은 1708년 초간 규장각장본(奎4121)을 저본으로 삼아 영인·표점한 한국문집총간 159 수록본(민족문화추진회, 1995)을 사용하기로 한다.
- 4) 1701년에 창계의 스승 李端相의 아들이자 金昌協의 처남 李禧朝가 林淨에게 보낸 서찰「答林道冲, 芝村集 卷12」을 보면, “先伯氏의 文稿 7冊을 金兄(金昌協)이 보내와 지금 책상 위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곧 金昌協이 李禧朝에게 창계의 유문을 산정하도록 한 듯하다.
- 5) 金昌協, 『滄溪先生文集』 卷末, 「滄溪集序」.

- 공은 나이 10세 때에 考亭의 『대학』 格物說을 보고 온갖 이치를 다 연구하려는 뜻을 품었다. 20세에는 『주자대전』을 구해 읽고 더욱 감동하고 기뻐하여 밤낮으로 거기에 침잠하여 1년 만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만년에는 延平(李侗)의 학문을 매우 좋아하여 벗들에게 자주 그에 관해 말해 주곤 했으며, 언행을 검속하고 덕성을 함양하기를 더욱 깊고 간결하게 했다.
- 공은 문장이 출중하면서도 평소엔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문집에 시와 문은 단 몇 권에 불과하고 서찰만 매우 많다. 그중 학문을 강론하고 일을 논의한 것은 모두 본말을 완전히 연구함으로써 드러내어 밝힌 것이 많았다.
- 공은 평소의 언론을 한결같이 考亭의 뜻에 따랐으나, 유독 조정의 상호 이견에 관해서는 늘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 이는 혹시 시대 상황에 부득이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考亭을 제대로 배우는 데에는 무방한 것인 지도 모르겠다.

김창협은 타계하기 전에 蘆原의 처소로 金壇이 찾아오자, 詞章之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창계선생집』을 꺼내어 서찰 한 통을 직접 읽고, “사장만 숭상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나를 따르니 지 오래되었는데 대체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이곳은 조용하므로 강론에 전념할 수가 있다. 道峯書院이 10리도 되지 않으니, 서원에 와서 머무른다면 아침저녁으로 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권유했다고 한다.<sup>6)</sup>

이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창계집』(1994),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펴낸 『창계선생집』(한국문집총간 159권,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67: 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2003), 한국고전번역원의 2016년~2020년 번역 『창계집』,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창계문고 소장 자료를 주 자료로 하여, 창계 시문과 학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계는 駢文·程式詩·三字銜製述·述志詩에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그의 科宦歷·學問工程·에 따른 결과이다. 『肅宗實錄補闕正誤』의 숙종 22년(1696) 2월 6일 수록의 창계 줄기는 창계를 조선조 ‘因文入道’의 제일인자로 꼽았다.<sup>7)</sup> ‘因文入

6) 金昌協, 『農巖集』 別集 卷2, 附錄 1, 제문(金壇).

7) 『肅宗實錄補闕正誤』 권30, 숙종 22년(병자, 1696) 2월 6일(壬辰). “我朝雍尚儒術, 近世尤盛, 前輩名

道’의 평어는 학문공정·과환력과 관련이 깊다. 기왕의 연구는 이 점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sup>8)</sup> 또 창계는 늘 학문의 規模에 대해 의식하고 窮究와 敬謹의 두 방향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 II. 창계의 科宦歷·學問工程과 시문

1657년(효종 8, 정유) 부친 林一儒(1611~1684)<sup>9)</sup>가 恩津 현감으로 부임하자, 창계는 은진에 거처하며 「小學」과 四書를 읽었다. 이듬해(1658, 효종 9, 무술) 羅州 會津으로 가서 季父 林長儒의 慈孝堂에서 공부했다. 1659년에 창계는 학문 방법과 시문 제술 방법을 터득했다. 이때 경전 대문과 주자 본주는 물론, 小註까지 숙독했다. 『대학장구대전』에 실려 있는 『대학혹문』의 格菴趙氏(趙順孫) 설은 陳淳의 설을 가져온 것인데, 당시 독서층은 大全本 小註의 출전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창계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sup>10)</sup> 또한 창계는 이 해, 博古의 情報資料集인 『事文類聚』를 완독했다. 창계는 훗날, “詩賦命題冊題逐條多出於此”라고 술회했다. ‘冊題’는 ‘策題’의 오키로, 이 구절은 “詩賦命題, 策題逐條, 多出於此.”로 끊어 읽어야 할 것이다.<sup>11)</sup>

流, 多有因文入道者, 若其妄性之醇厚, 趣致之深遠, 學識之平實, 講解之超卓, 言議之公正, 泳實爲之最焉.”

8) 최근 연구 성과로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주최, 『창계 임영의 생애와 사상』 논문집(2020, 10.30), 『민족문화』 56(2020) ‘滄溪 林泳의 생애와 사상’ 기획논문 4편을 들 수 있다.

9) 李德壽 찬술의 「僉知中樞府事贈吏曹參判林公墓碣銘」이 『西堂私載』 권5에 실려 있다.

10) 大全本 『大學或問』 小註 ‘格菴趙氏曰’. “一塵之微, 一息之頃, 不能遺者. 理無物不在, 無時不然. 大而天地之一開一闔, 古今之一否一泰, 小而一塵之或飛或伏, 一息之或呼或吸, 皆此理之所寓也.” ; 『北溪大全集』 卷40 答問 ‘答陳伯澡再問大學’. “問: 極其大, 天地之運, 古今之變, 不能外也. 盡其小, 一塵之微, 一息之頃, 不能遺也. 此處欲分別其所當然與其所以然之故, 如何? [答] 理無物不在, 無時不然. 大而天地之一開一闔, 古今之一否一泰, 小而一塵之或飛或伏, 一息之或呼或吸, 皆此理之所寓也. 當然, 就其見定者而言. 所以然, 乃大化本體從來如此.”

11) 『사문유취』는 송나라 祝穆이 엮은 유서로, 1246년에 前集·後集·續集·別集 170권을 이루었다. 이후 원나라 富大用이 新集 36권, 外集 15권을 추가하고, 祝淵이 遺集 15권을 추가하여, 총 236권으로 되었다. 『古今事文類聚』 혹은 『新編古今事文類聚』의 판본이 유통되었다. 조선에서 계축자와 갑진자로 『新編古今事文類聚』를 인쇄했다. 1643년(인조 21) 金堉은 『類苑叢寶』를 엮을 때 『사문유취』의 체제를 참조했고, 18세기 초 李瀾도 『성호사설』을 엮을 때 『사문유취』를 지식정보원으로

11세 때인 이 해에 창계는 여러 형들을 따라 科詩와 古風을 익히고, 科表 작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做’는 과시문의 연습을 가리키는 한국식 한자어이다. 古風은 無韻 칠언장편, 즉 大古風을 말한다. 스스로 과표를 지었다고 했으니, 駢文 형식을 자득했음을 알 수 있다.

13세 때인 1661년(현종 2. 신축) 叔祖인 東里 林堉에게 『주역』을 배웠다. 1662년 봄에 창계는 羅州 會津에 있을 때, 季父 林長儒가 ‘자효당’으로 試題를 삼아 子姪들에게 서문을 지으라 하자 駢文으로 「慈孝堂序」를 지어 올렸다.<sup>12)</sup> 1662년 여름, 조부 林端이 務安 바닷가의 ‘觀海亭’ 精舍에 대해 여러 손자들에게 기문을 짓게 하자<sup>13)</sup> 창계는 「觀海亭序」를 지었다.<sup>14)</sup> 다른 손자들은 산문으로 지어 올렸으나 창계만 변려문으로 지어 올렸다. 句法이나 體格이 清新하면서도 노숙하여 조부 매우 뛰어난다고 여겨 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창계는 15세 되던 1663년(현종 4, 계묘)에 변문으로 「三浦石橋重修文」을 지었다.<sup>15)</sup> 羅城에서 떨어져 서쪽으로 錦里에 접한 곳인 삼포에 석교를 놓을 때 모금을 위한 勸緣勸善文이다. “貧道落髮, 初年住, 心博施.”라 했으므로, 승려를 대신하여 지었는지 모른다. 이 글은 교량 수축을 자비의 행위로 설하는 불교 논리를 따랐는데, 전고를 많이 사용했다. 교량비는 주로 고문으로 작성하고 간혹 한국식한문이 사용되며, 지방관원이나 지방민이 주창한 경우가 많지만,<sup>16)</sup> 창계의 이 募緣文을 보면 변문의 문체이다.

1664년(현종 5, 갑진) 龍安(益山) 현감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서, 都舉元에게 『文選』을 배웠다. 7월에 조부상을 당하여 會津으로 돌아왔다. 이 해 「義勝記」를 창작

활용했다.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제2책, 태학사, 2012(증보).

12) 林泳, (壬寅春○十四歲作 移書)『滄溪先生文集』拾遺, 「慈孝堂序」. 고전번역원 정리본은 斷句에 잘못이 있다. “家有塾. 黨有序. 八九椽之爰謀; 子止孝, 父止慈, 數三額之斯揭. 一室蕭然, 五倫全矣. 至若峽裏春還. 覽寸草而圖報. 郊墟秋霽, 望白雲而興思.” “則逕東西翠竹蒼松. 屋上下青山流水.” “調羹美味, 初呈王祥之玉鱗. 入饌佳肴. 復供羅威之珍品. 三千年一花. 三千年一實, 長齡冀蟠桃; 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 遐壽祝荊樹.”와 같은 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13) 『滄溪先生文集』附錄補, 「滄溪先生年譜草」.

14) 林泳, (壬寅夏○移書)『滄溪先生文集』拾遺, 「觀海亭序」. 고전번역원 정리본은 斷句에 잘못이 있다.

15) 林泳, (癸卯冬○移書)『滄溪先生文集』拾遺, 「三浦石橋重修文」. 고전번역원 정리본은 斷句에 잘못이 있다.

16)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했다. 1665년(현종 6, 을사) 봄, 서울에서 靜觀齋 李端相에게 배웠다. 4월 庭試에 응시, 「擬唐陸象先謝褒以歲寒松柏表」(1665년)의 試紙가 전한다.<sup>17)</sup> 이 乙巳庭試에서는 金萬重이 갑과로 居魁했다.<sup>18)</sup> 겨울에 曹漢英의 손녀 昌寧曹氏와 혼인했다. 1666년(현종 7, 병오) 1월 26일 과장을 열고 2월 11일 방방했는데, 해당 연도의 『司馬榜目』에 따르면 18세의 창계는 제2소(성균관)에 入場하여 書義 「木鐸循于路」로 生員試에 수석 입격했다.<sup>19)</sup> 6월, 조모상을 당했다. 겨울에 「小學」을 읽고 『讀書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1669년(현종 10, 기유) 8월에 咸興判官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北關으로 갔다. 1671년(현종 12, 신해) 11월 29일(당일 방방) 庭試 문과에 賦「至日閉關」으로 을과 1위(亞元)를 했다.<sup>20)</sup>

1672년(현종 13, 임자) 서울에 와서 假注書가 되었다. 8월에 「靜觀齋李公狀譜後序」를 작성했다. 겨울에 부친을 따라 羅州 會津으로 갔다. 25세 되던 1673년(계축) 아우 林淨과 함께 龍門山 白雲峯을 유람하고 「白雲峯登遊記」를 작성했다. 이때 龍津을 지나면서 杜甫 시 「北征」의 “무릉도원을 아스라이 생각하고, 이내 신세 소졸함을 더욱 탄식하노라.”라는 구절을 세 번 반복해 외우다가 운자를 나누어 절구 10수를

- 
- 17) 크기137×129.7 낱장 1장. 『고문서집성 67-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현재 대동문화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다.
- 18) 金萬重, 『西浦先生集』 卷9 表箋, 「擬唐陸象先謝論以歲寒松柏表」(乙巳庭試居魁). 表題의 陸象先은 당나라 睿宗·玄宗 때 사람으로 본명은 景初였는데, 예종이 象先으로 賜名했다. 蒲州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요란스럽게 만들 따름이다. 그 근원을 막게 하면 일이 간략하게 되지 않음을 어찌 걱정하랴?”라고 했다. 『舊唐書』 卷88, 「陸象先列傳」; 『唐書』 卷116, 「陸元方傳 陸象先」. 또한 『資治通鑑』 唐紀26 開元元年(713年).
- 19) 『사마방목』에 따르면 1소(漢城府)의 시관은 吏曹判書 兼兩館大提學 金壽恒, 刑曹參判 朴世模 등이며, 과제는 賦「詩得江山助」, 詩「白雲何人許更裁(押裁)」, 疑「子曰學而不厭誨人不倦何有於我哉又曰爲之不厭誨人不倦可謂云爾而矣聖人之言亦有前後之不同何歟」, 禮義「君子不盡利以遺民」였다. 2소(成均館)의 시관은 禮曹判書 朴長遠, 行弘文館副提學 兼藝文館提學 趙復陽 등이며, 과제는 賦「相泣授將印」 詩「歸路過玄度(押度)」, 疑「孟子曰於崇吾得見王退而有去志久於齊非我志也又曰子三宿而出晝於子心猶以爲速王如改諸則必反子見王之初已有去志則去齊之時猶以三宿爲速至有反子之望何歟」, 書義「木鐸徇于路」였다. 義題 書義「木鐸徇于路」는 『書經』 「夏書 胤征」 “每歲孟春, 遘人以木鐸徇于路.”에서 왔다. 진사장원급제는 崔錫萬이었다. 『고문서집성 67-나주 회진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丙午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古朝 26-29-16]); 현재 시권이 대동문화연구원 창계문고에 전한다.
- 20) 문과장원급제는 朴泰尙, 합격인원은 8명이고, 무과장원급제는 李必華, 합격인원은 174명이었다. 『國朝文科榜目』 卷12, 「辛亥十二年庭試榜」.

지어, 귀거래의 뜻을 가탁했다.<sup>21)</sup>

1675년 12월 경에는 강원도 通川에 있으면서, 두보가 48세 되던 759년(건원 2) 11월부터 12월에 蜀으로 들어가기까지 1개월간 成州 同谷[甘肅省 秦州 서남]에 寓居하면서 감회를 읊은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 7수에 차운했다.<sup>22)</sup> 단, 가행 형식은 취하되, 次韻은 하지 않았다. 세간 물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산림과 서책을 사랑하는 취향을 말하고, 웅대한 지향이 있지만 세월이 흘러감을 아쉬워했다. 창계는 또 七言組詩 五句詩 「曲江三章」에 차운했다. 두보가 45세 되던 756년(지덕 1) 안녹산의 난을 피해 廊州 羌村으로 이사했다가 적군에게 사로잡혔을 때 지은 시이다.<sup>23)</sup> 창계의 제2장은 意思가 豪放하다.<sup>24)</sup> 창계는 또 두보의 「秦州雜詩」 제13수, 제15수, 제16수에 차운해서 「龍淵新居次杜詩東柯韻」 3수를 남겼다.<sup>25)</sup> 제3수는 “출처행장의 바른 행동은 천고에 길이 전할 일이고, 부귀는 한 조각 뜬구름일 뿐이네.[行藏千古事, 富貴一浮雲.]”라고 흥금을 드러냈다.

1674년(현종 15, 갑인) 2월, 부인 曹氏(1651~1674)의 상을 당하여, 「亡室安人曹氏行狀」을 지었다. 이해 창계는 『대학』·『가례』·『주자어류』 등을 읽었으며, 겨울에는 退溪와 栗谷의 四端七情論을 읽고 筍錄을 작성했다.

1675년(숙종 1, 을묘)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2월에 同志와 함께 嶺東 通川으로 가서 농사지를 땅을 알아보고, 10월에 양친을 모시고 통천으로 가서 용연촌에 머물렀다. 1676년 가을, 6품에 올라 典籍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때 「通川龍淵新居上樑文」을 지었다.

- 
- 21) 도연명의 시 「歸田園居」의 “남쪽 들판의 끝 황량한 밭을 일구고서, 졸렬한 본성 지키며 전원 돌아와 사노라.[開荒南野際, 守拙歸田園.]”라는 구절에 깊이 공감했다. 林泳, 「行過龍津三復杜詩緬思桃源內益歎身世拙之句分韻成十絕」, 『滄溪先生文集』 권1.
- 22) 林泳, 『滄溪先生文集』 권1, 「寓居通川效老杜同谷歌作」. 제1편은 객지의 빈곤한 생활을 탄식했고, 제2편은 가족이 굶주리는 형편을 탄식했으며, 제3편은 멀리 있는 아우를 생각했고, 제4편은 누이 동생을 생각했으며, 제5편은 고향에 돌아가고픈 생각을 읊었고, 제6편은 山湫의 龍을 노래했으며, 제7편은 자기 만년의 불우함을 탄식했다.
- 23)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 「又次老杜曲江三章」.
- 24) “高歌浩嘯懷千古, 眼看一世何鹵莽, 區區勢名焉足數. 幽人閉戶不肯出, 門外滄溟日風雨.” 두보의 「曲江三章」 제2장은 이리하다. “即事非今亦非古, 長歌激越捐林莽, 比屋豪華固難數. 吾人甘作心似灰, 弟侄何傷淚如雨.”
- 25) 두보는 乾元 2년(759)에 華州에서 벼슬을 버리고 기근을 피하여 秦州로 와서 머물며 「秦州雜詩」를 지었다. 창계는 그 가운데 두보가 東柯谷을 소재로 삼아 지은 시들에 차운했다.

1676년(숙종 2, 병진) 11월, 서울에 와서 李龜年의 딸을 계실로 맞고, 12월에 아우 임정과 함께 통천으로 돌아갔다. 1678년 『성리대전』을 읽었다. 『南溪集』 권31 「答林德涵」(6월 2일)에서 알 수 있듯이, 自得의 문제를 성찰했다. 9월에 부친이 가족을 이끌고 扶餘 藻溪村으로 떠난 후, 11월에 창계도 이주했다.<sup>26)</sup> 1680년(숙종 6, 경신) 叢岩精舍를 짓고, 상량문을 찬술했다.<sup>27)</sup>

이 무렵 창계는 「擬漢西域都護甘延壽等破郅支露布」를 지었다. 呂祖謙(1137~1181)이 模擬纂組를 거부하고 「唐定襄道行軍大總管破突厥露布」[『東萊集』 외집 권3]을 지어 특별한 감회를 부친 것을 본받았다. 1127년(靖康 2) 북송의 수도 汴京이 함락되고 徽宗과 欽宗이 후금에 잡혀가고 江汜의 사직이 일개 郡王에게 비길 정도로 되자 여조점은 노포를 의작하여 불평스러운 감정을 실었다.<sup>28)</sup> 창계의 의작 노포는 한 원제 때 서역도호 甘延壽가 부장 陳湯 등과 함께 制書를 위조하여 군사를 징발해서 康居를 격파하고 郅支 單于를 참수했으나, 포상 혹은 처벌 문제로 논쟁이 벌어져 3년이 지나 감연수는 義成侯에, 진탕은 關內侯에 책봉되었던 사실을 소재로 삼았다<sup>29)</sup> 창계는 “천도가 잔학한 자를 교화하므로 오랑캐는 100년의 운수를 유지할 수 없고, 인심이 순종함으로써 성왕이 一統의 존귀함을 누린다.”라고 전제하고, 감연수의 승첩으로 황제의 위엄을 변방에 퍼고 신성한 武威를 만방에 떨친 사실을 칭송했다. 『춘추공양전』 隱公 원년에 “왕자는 바깥이 없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하면 바깥이 있다는 말이 된다.[王者無外, 言奔, 則有外之辭也.]”라고 했고, 何休 注에 “왕자는 천하를 한 집안으로 삼으니, 끊어 버리는 의리가 없는 것이다.[王者以天下爲家, 無絕義.]”라고 한 말을 근거로, 전투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sup>30)</sup>

한편, 창계는 역사고사를 제목으로 삼아 칠언장편으로 짓는 程式詩를 작성했다. 그 가운데 「二聖一語孤臣哀」 40구는 蘇軾(1037~1101)이 환조하여 철종 元祐 2년인

26)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6 上樸文, 「扶餘巖棲齋上樸文」.

27) 林泳,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위탁 滄溪家 소장 필사 문헌 『雜著』, 「叢岩新居上樸文」; 정우봉, 「滄溪 林泳 자료의 문헌적 검토와 산문 창작의 일면」,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51면.

28)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6 雜著, 「擬漢西域都護甘延壽等破郅支露布」.

29) 『漢書』 卷9 「元帝紀」, 卷70 「甘延壽傳」, 卷70 「陳湯傳」, 卷94上 「匈奴傳」 및 『資治通鑑』 漢紀 「孝元帝篇」에 나온다.

30) 창계가 다룬 주제는 당나라 문종 때 吐蕃과 우호를 맺은 후 維州의 悉怛謀가 투항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정조의 經史講義 ‘綱目9 唐文宗’ 조에 실달모 사건을 논한條間이 있다. 『弘齋全書』 권118 經史講義 550 綱目9唐文宗.



1087년에 禁中에서 숙직하다가 宣仁后로부터 생전의 신종이 소식의 유배를 안타까워하여 소식의 문장을 誦讀할 때면 ‘奇才! 奇才!’라고 감탄했다는 말을 듣고 感泣한 사실을 노래했다.<sup>31)</sup> 주제는 詞章家の ‘潤色材’이다. 명나라 李東陽(1447~1516)은 『西涯樂府』 「奇才歎」에서 이 고사를 다루어, “기재로다 참으로 기재로다. 二聖[수렴 청정하던 선인후]의 한마디 말씀에 외로운 신하 슬퍼했네. 외로운 신하 서글픈 눈물 비처럼 흐르니, 소인배들이 신을 죽이려 했지만 신에게는 聖主가 있었다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꿈속의 몸으로 천상의 말 들을 수 있었으랴? [奇才復奇才, 二聖一語孤臣哀. 孤臣哀淚如雨, 衆欲殺臣有主. 不然安得夢中身天上語?]”라고 했다. 창계의 「二聖一語孤臣哀」는 哀 자를 제3련 말자로 사용하고 그 글자가 속한 평성 제10 仄운의 글자 20개를 격구압운하고, 초구에도 입운했다.<sup>32)</sup> 3련(즉 조선의 3구) 1股로, 3股가 1단을 이루며, 전체를 6股와 결미 1련(1구)으로 구성했다. 18세기 이후의 科試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형식으로, 후기 과시와는 달리 簾法을 지켰다.

창계는 元稹의 「以州宅誇於樂天」의 「謫居猶得住蓬萊」를 제목으로 삼아 40구 칠언 고시를 찬술했다. 원진의 시에 “멀리 둘러나간 성곽에 뭇계구름 스치는데, 鏡湖와 稽山이 눈에 가득 들어오네. 사면으로 언제나 병풍 마주하고 있으니, 한 채의 집 온종일 누대에 있는 것 같구나. 은하수는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듯하고, 고각 소리 땅 밑에서 돌아나오는 듯 놀라워라. 나는 옥황상제의 향안 맡았던 아전이라, 인간 세상 유배 와도 봉래산에 살고 있구나. [州城迴遶拂雲堆, 鏡水稽山滿目來. 四面常時對屏幃, 一家終日在樓臺. 星河似向簷前落, 鼓角驚從地底回. 我是玉皇香案吏, 謫居猶得住蓬萊.]”라고 했다.<sup>33)</sup> 원진은 자신이 越州로 폄적되어서도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白居易에게 자랑했는데, 백거이는 시 「答微之誇越州州宅」으로 화답해서, 원진이 봉래에 謫降한 것이라고 예찬했다. 창계는 유배지 公署를 道院이라 여기고 眞遊하는 심경을 追想했는데, 萊 자를 압운자로 정하고 그 글자가 속한 평성

31) 북송 神宗 熙寧 때 소식은 進士策文의 試題에서 왕안석의 專橫을 비판했다가 杭州通判으로 貶謫되고, 1080년(元豐 3) 湖州로 옮기게 되자 表文을 올려 사직하고 시로 失政을 풍자해서 烏臺詩案을 일으켰다. 사면 받아 黃州 團練副使가 되었는데, 재상 王珪와 蔡確의 탄핵으로 汝州로 옮기게 되자 글을 올려 常州 團練副使가 되었다. 신종이 붕어하고 철종이 즉위하자 登州知事가 되었다가, 조정에 들어와 禮部郎中을 거쳐 翰林學士로 侍讀을 겸했다.

32)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2 詩, 「二聖一語孤臣哀」.

33) 『元氏長慶集』 卷22; 『舊唐書』 卷166 「元稹列傳」; 『瀛奎律髓』 卷4 庭宇類.

제10 灰 운목의 글자들을 20개 골라 격구압운했으며, 초구에도 입운했다.<sup>34)</sup>

창계는 1680년 초 부탁을 받아 「貞明公主第賜宴詩并敍」를 지었다.<sup>35)</sup> 당시 李敏敍도 「貞明公主七十七歲壽宴序」를 작성한 것이 있다.<sup>36)</sup> 정명공주는 1603년(선조 36) 선조와 그의 繼妃 인목왕후 김씨 사이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으며, 영창대군의 누나이다. 1613년 계축옥사 때 인목대비와 정명공주는 목숨을 부지하고, 1623년 3월 인조 반정으로 복권되었다. 이때 21세 정명공주의 혼례에 18세의 홍주원이 부마로 간택되었다. 1632년(인조 10) 인목대비 타계 후 인조가 병들자 궁중 저주사건에 정명공주는 연루될 뻔하고 1639년 두 번째로 궁중 저주 사건이 일어나 휘말릴 뻔했다. 7남 1녀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 洪萬容의 증손자 洪鳳漢의 딸이 사도세자의 세자빈 혜경궁 홍씨로, 정명공주의 6대손이다. 숙종 때 이조참판 洪錫輔는 정명공주의 증손이다. 1677년(숙종 3) 5월 19일, 숙종은 정명공주의 75세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1679년 8월 23일(신묘)<sup>37)</sup>에 다시 전교를 내려 宴樂을 하사했다. 1680년에 이르러 洪萬熙의 부탁으로 창계가 그 시축에 서문을 쓰고, 경축시를 지었다. 홍만희는 永安尉 洪柱元의 셋째 아들이다. 창계는 서문과 시에서 숙종의 ‘達孝’와 ‘孝理’를 주제로 삼고, 숙종의 모친 明聖王后 金氏(1642~1683)와 妃 仁敬王后 金氏(1661~1680)의 애뜻한 賜與도 칭송했다.

창계는 「총암에서 한가로이 지내면서 동파가 쓴 <취옹정기>를 가져다 집자하여 시를 짓다[叢巖閑居取東坡書醉翁亭記集字爲詩]」 3수를 지었다. 제1수는 序詩이고, 제2수는 아침의 정경과 심경, 제3수는 저녁의 정경과 심경을 노래했다. 「醉翁亭記」는

34)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2 詩, 「謫居猶得住蓬萊」. 『太平廣記』 卷21 「神仙」에 등장하는 謝自然은 배를 타고 봉래로 가다가 바람에 떠밀려 어떤 산에 이르러 한 도인을 만났는데, 도인은 天台山의 司馬承禎을 스승삼을 만하다고 일러주었다. 당나라 李商隱의 「鄭州獻從叔舍人」 시에 “모군은 누대에 걸쳐 신선의 귀한 신분이고, 허연은 온 집안사람들 도기가 충만했네.[茅君奕世仙曹貴, 許掾全家道氣濃.]”라고 했는데, 「十二真君傳」에 보면 許掾은 許翺로, 조상인 許琰·許肅·許孫·許穆 등이 仙道를 경모한 내력을 따라 신선이 되어 돌아갔다.

35)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 詩, 「貞明公主第賜宴詩 并序」. 시는 이러하다. 「吾王敬貴主, 錫宴光後前. 豈惟重尊屬? 且爲優高年. 有司盛供給, 自天加特宣. 御廚送仙醕, 天府出綺筵. 泠泠廣樂奏, 別撤雲韶懸. 兩宮各繼緒, 賜子亦聯翩. 惟茲老老仁, 孝理行復甄. 貴主壽金石, 聖朝恩如天. 如天將何報? 主家子多賢. 子子復孫孫, 萬世忠彌堅.”

36) 李敏敍, 『西河先生集』 卷12 序跋, 「貞明公主七十七歲壽宴序」.

37) 李敏敍의 「貞明公主七十七歲壽宴序」는 ‘越二年己未, 公主年益高, 八月又賜宴如丁巳.’라고 했다.

구양수가 滁州太守로서, 고을의 관민들과 산수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을 노래했는데, 창계는 雲水間 清幽의 삶을 노래했다. 운자[下·者·散·亂·絕·出]는 모두 歐陽脩의 「醉翁亭記」에서 취하고, 非韻末字[來·間·開·風·時·峯]도 開 한 글자만 빼고 네 글자를 모두 「취옹정기」에서 취했다.<sup>38)</sup>

1680년 5월에 창계는 정언이 되고, 6월에 都堂錄에 뽑혀 부수찬이 되었다. 10월, 교리로서 宋時烈과 함께 召對에 입시하여 「太極圖說」과 「西銘」을 진강했다. 1681년(신유) 지평, 교리, 헌납을 역임했다. 창계는 1680년부터 知製敎의 三字銜을 겸대했다. 현전하는 告身으로 볼 때, 삼자함을 겸대했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1680년(숙종 6) 奉列大夫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이후 1688년까지 知製敎 겸대.

1687년(숙종 13)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1688년(숙종 14)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敎

1688 通政大夫吏曹參議知製敎

이후 知製敎 겸대하지 않음

1695년(숙종 21)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이후 1696년까지 知製敎 겸대하지 않음

1696년(숙종 22) 嘉善大夫行忠武衛司直

1680년(숙종 6) 4월 외척 金錫胄가 밀객을 시켜, 영의정 許積의 서자 許堉이 三福과 결탁하여 역모를 도모한다고 고변했다.<sup>39)</sup> 이에 獄事가 일어나 삼복과 許積·尹鑄·吳挺昌 등이 賜死되고 많은 남인들이 처벌받았다. 이로써 영의정 허적, 좌의정 閔熙, 우의정 吳始壽 등이 주도하던 남인 정권이 영의정 金壽恒, 좌의정 鄭知和, 우의정 閔鼎重 등 서인 정권으로 급격히 교체되는 ‘庚申大黜陟’이 발생했다. 1680년 5월, 수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南九萬이 「庚申討逆後頒敎文」을 지어 올리고 保社原

38)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2 詩, 「叢巖閑居取東坡書醉翁亭記集字爲詩」(3首). 제1수는 이리하다. “深山無往來, 幽禽自上下. 蒼蒼雲水間, 此樂誰知者.”

39) 본래 숙종 원년 3월 12일, 麟坪大君의 아들인 福昌君 李楨, 福善君 李柑, 福平君 李樸 형제가 외숙 吳挺垣, 吳挺緯, 吳挺昌 등과 연합하여 권세가 있었다. 이때 明聖大妃의 부친 金佑明이 상소하여 복창군 형제가 궁중의 나인들과 사통했다고 고발하여, 의금부에서 조사하게 했다. 이 사건은 나인들만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동지경연사를 겸하고 賑恤廳堂上에 차임되었다.<sup>40)</sup> 許穆(1595~1682)은 반교문이 지날 때 賀班에 참석하려 했으나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후 삭출당했다.<sup>41)</sup> 남구만은 허견 역모에 가담한 삼복을 한 고조의 손자 회남왕 劉安에 비유하고, 허적을 당 현종 때의 간신 李林甫에게 비유했다. 문체는 변문으로, 簾法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句中平仄交互法도 일부 따랐다. 1680년 종묘에 재차 告諭하는 글(「討逆告廟祭文」)은 지제교 창계가 4언 54구로 작성했다.<sup>42)</sup> 여름에 난리를 토벌하고 告禮를 거행한 이후 역적 梟과 그 외숙 昌이 이실직고했고 몇몇 역적들이 내밀한 사실을 서로 증언하여 미진한 점이 남김없이 밝혀졌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爰書에 의거하여, “본래 조정의 중론이라 빙자하면서, 중전을 흔들려고 도모했습니다. 친정하고 종묘에 고할 때, 계획을 서로 주고받았고, 역모를 꾀함이 더욱 급박해져서, 體府가 다시 복설되었습니다.”<sup>43)</sup>라고 여죄를 고했다. 또한 1679년 李蘊의 역모 사실과 송시열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지난해, 요망한 역적을 토벌한 일을 고했는데, 글을 지어 일을 지적할 때, 간신이 역권을 펼쳐서, 무고한 신하가 난리를 선동한다고 지목되었습니다. 그 글을 바친 이는 이우였으니, 역적이라 일컫기도 관대한 일입니다.”라고 했다.<sup>44)</sup>

『창계선생집』에는 또한 지제교인 창계가 1681년(숙종 7)에 작성한 「教嶺南觀察使 尹趾完書」가 있다.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 尹趾完(1635~1718)에게 내리는 使命訓諭敎書를 초안한 것이다. 윤지완은 1684년(숙종 10) 어영대장의 직임을 맡고도 인형하여 출사하지 않아 8월 26일(기미)에 특별히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좌천이었다. 변문으로 작성된 이 교서는, 동진의 陶侃을 예로 들어 검약을 강조하고 송나라 范仲淹의 「岳陽樓記」를 들어 先憂後樂의 자세를 당부한 후, 周敦頤가

40) 南九萬, 『藥泉集』第十四 應製錄, 「庚申討逆後頒敎文」. 『약천연보』 제3권 '52세 경신년(1680, 숙종6)' 조.

41) 『眉叟年譜』(許磊撰 제2권 경신년(1680, 숙종 6) 선생 86세.

42) 林泳, 『滄溪先生文集』卷16 祭文, 「討逆告廟祭文」.

43) 당시 許積이 尹鑣 등과 의논하여 大義를 내세우고 자신의 집 동산 언저리에 체부를 특별히 설치한 다음 都體察使가 된 일을 가리킨다. 『숙종실록』 1년 12월 15일, 2년 1월 25일.

44) 1679년 3월 각 道の 僧軍을 징발하여 강화도에 墩臺를 쌓았는데, 이때 사대부 李有漬이, 築城將 李蘊에게 인조반정은 중종의 차례를 잃었으므로 소현세자의 손자 臨昌君 李焜을 옹립하자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이에 국청을 열어 이유정을 추문하고, 4월 29일 이유정은 복주되었다. 『숙종실록』 5년 3월 12일, 5월 19일.

分寧縣 주부, 南安 현령, 南昌 현령, 廣東 轉運判官 提點刑獄으로서 冤獄을 없게 한 일, 주희가 同安縣 주부, 漳州 지사로서 지방관의 천단과 부호의 전횡을 막은 일을 들어 국가 권력을 관철시키는데 진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1681년 1월 21일 소대에서 창계는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함께 입시하여, 朴尙夷(1332~1375)을 정몽주와 똑같이 표창할 것을 주청했다. 다시 11월 13일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발의하자, 숙종은 박상충에게 ‘文正’의 시호를 주고 치제하게 했으며, 이어 송도에 사우를 세우도록 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자 李仁任 일파가 禍王을 추대하여 정권을 잡고 친원 정책을 취하자, 박상충은 鄭夢周과 함께 排元論을 주장했다. 간관 李詹과 全伯英이 이인임을 죽이라고 상소했는데, 이 일로 친명파가 연좌되어 장형에 처해지고 유배되었다. 이때 박상충은 杖毒으로 靑郊驛에서 죽었다.<sup>45)</sup> 1682년 정월의 贈諡 致祭에 맞추어 창계는 4언 70구 35운의 제문을 지어,<sup>46)</sup> 人道의 大綱은 君臣之義과 華夷之防이라고 전제하고 고려 말의 혼란기에 박상충이 ‘正義深忠’을 드러내어 정몽주와 아름다운 명성이 나란하다고 칭송했다. 그리고 贈諡와 立祠가 ‘원로’(송시열)의 건의에 따라 대신들이 ‘同颺’한 결과라고 밝혔다.<sup>47)</sup> 창계

45) 『高麗史』 卷112 「朴尙夷列傳」; 『肅宗實錄』 7年 1月 21日, 11月 13日. 창계는 당시 安師琦가 이인임의 명을 받고 金義를 사주하여 명나라 사신 蔡斌을 죽이자, 박상충이 탄핵소를 올렸던 일, 이인임이 백관 연명으로 공민왕의 죽음과 禍王의 즉위에 대해 원나라 中書省에 모욕하러 하자 박상충이 林樸, 鄭道傳과 함께 서명하지 않은 일을 들었다. 또 1375년(우왕 1) 원나라에서 공민왕 시해 사건을 용서한다는 뜻을 알리는 사신을 보내려 하자, 이인임 등이 정도전에게 접반하도록 했으나, 정도전은 반발하다가 會津으로 귀양 갔다. 判典校寺事 朴尙夷도 원나라 사신을 거절할 것을 상소했다. 『高麗史節要』 卷30, 辛禍1; 『高麗史』 卷112, 「朴尙夷列傳」; 『高麗史』 卷126, 「姦臣列傳 李仁任」; 『定齋集』 卷3, 「潘南先生事蹟略」.

46) 林泳, 『滄溪先生文集』 권16 祭文, 「文正公朴尙夷贈諡致祭文」. 『南溪集』 권4에 「正月廿九日 朝廷遣官宣諡於先祖潘南先生墓次 翌日致祭 感歎志懷」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47) “予相人道, 厥有大綱. 君臣之義, 華夷之防. 根天亘古, 作民彝常. 有卓于茲, 曠代可忘? 念昔麗季, 國家將亡. 逆臣執命, 環土迷方. 舍彼義主, 眷戀戎羌. 無復人理, 何有宗祚? 孰處其間, 獨任扶將? 名賢維靈, 天與剛腸. 有屹其立, 砥柱懷襄. 忠肝義膽, 日星爭光. 禍福死生, 視若毫芒. 爰初斬琦, 大論是張. 不署呈書, 厥節彌彰. 却使之疏, 片言秋霜. 逆順理明, 安危計長. 欲執權輿, 歸命天王. 能是一舉, 國其再昌. 豈惟國昌? 人免犬羊. 事有至難, 言發身戕. 鳳凰一羽, 足徵五章. 正義深忠, 百世攸臧. 矧伊國乘, 紀蹟又詳. 行著家庭, 教存儒庠. 惟其有本, 其達無疆. 與鄭文忠, 寔並流芳. 世教所關, 可闕褒揚. 元老建言, 諸輔同颺. 感時懷賢, 增予激昂. 追加美諡, 兪議攸當. 亦有成命, 立祠于鄉. 爰茲致祭, 卽彼隴荒. 豈日能崇? 表予心傷. 庶幾精爽, 歆此洞觴.” [은자:綱·防·常·忘·亡·方·羌·祔·將·腸·襄·光·芒·張·彰·霜·長·王·昌·羊·戕·章·臧·詳·

는 박상충의 상소에서 “신의를 버리고 역리를 따르는 것은 천하의 의리가 아니고, 강국을 배반하고 약국을 향하는 것은 오늘날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棄信而從逆, 天下之不義也; 背強而向弱, 今日之非計也.]”라고 한 주장을 인용했다. 박상충은 모친 상 중에 典校署丞으로 임명되자 기복했으나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삼년상을 마쳤다. 1367년(공민왕 16) 국학을 다시 지은 후 李穡이 대사성에 임명되었을 때, 박상충은 정몽주·金九容·朴宜中·李崇仁과 함께 學官에 임명되었다. 창계는 이 사실도 언급했다.<sup>48)</sup>

또한 1681년에 숙종은 李師命을 보사공신에 책록했는데, 창계가 지제교로서 교서를 초했다. 변문의 문체이다.<sup>49)</sup> 이후 1688년에 창계는 지제교로서 「大行大妃殿議政府率百官進香祭文」을 지었다. 『창계선생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대행대비는 인조의 계비 莊烈王后(1624~1688, 楊州趙氏)로, 음력 8월 26일(양력 9월 10일) 타계했다. 趙師錫이 대비의 조카로, 대비 사망 이후 우의정에 이른다. 9월 2일, 大行大王大妃의 시호를 莊烈, 徽號를 貞肅溫惠, 殿號는 孝思殿, 陵號를 徽陵로 정했다.<sup>50)</sup> 9월 8일, 충훈부는 大行大王大妃殯殿 진향을 仁宣王后 국호 때의 예에 따라 설행하겠다고 계문했다.<sup>51)</sup> 장렬왕후의 죽음 이후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인이 숙청되는 기사환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1681년 가을에 창계는 호남 試官으로 나갔다.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77일간의 여정을 『辛酉日錄』에 남겼다. 1682년(숙종 8, 임술) 5월 2일, 대제학 李敏敍의 선발에 따라 호당(독서당)에 들어갔다.<sup>52)</sup> 혜성이 잇달아 나타나자 교리로서 測候官에 임명되어 『星曆書』를 보고,<sup>53)</sup> 혜성을 관측했다. 8월에 만언소를 올렸다.<sup>54)</sup>

庠·彊·芳·揚·颺·昂·當·鄉·荒·傷·觴(七陽平聲)

48) 송시열은 「圃隱先生集重刊序」를 작성하여 조선 도통의 기원을 정몽주에 두었다. 창계의 박상충 증시치제문의 논조는 송시열의 정몽주 추숭과 통한다.

49) 『고문서집성』 67권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50) 『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1688) 9월 2일(신미).

51)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9월 8일.

52) 이때 6인을 뽑았는데, 趙持謙, 林泳, 吳道一, 朴泰輔, 李奮, 徐宗泰 등이다. 『숙종실록』 숙종 8년 5월 2일(己酉).

53)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 詩, 「戲題星曆書」, “人言禍福繫星躔, 我說人心自有天. 風月滿懷眞富貴, 雲山住跡是神仙. 閑中事業能千古, 世上功名祇百年. 此意欲傳誰信得, 掩書微笑獨欣然.”

54) 林泳, 『滄溪先生文集』 권4 疏劄, 「應旨言事疏」.

1684년(숙종 10, 갑자) 정월, 창계는 부친상을 당하고, 부여에서 龍潭 照林村[현 진안군 정천면 원조림리]으로 이주했다. 족제 得之 즉 林世讓이 창계와 함께 『초사』를 읽었는데, 그가 돌아가므로 창계는 「九歌 湘君」의 “계목의 노와 난목의 뱃전으로 얼음을 깨고 저어 가니 눈이 쌓이누나.[桂櫂兮蘭枻, 斲冰兮積雪.]”라는 말을 차용하여 「斲冰辭」를 지었다.<sup>55)</sup> 馬茂元 注에는 “斲冰積雪, 借指在水光中打槳前進.”이라 했으니, 창계는 明夷의 상황을 얼음 덮힌 강으로 상징한 듯하다. 통압과 협음에 따라 압운 체계를 실험하면서, 이별의 정을 절절하게 표현했다.<sup>56)</sup> 이 무렵부터 창계는 조성기와 학문에 관한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

1686년 3월, 이조정랑이 되었다. 5월, 鎭安 半月村으로 이주했다. 1687년 2월, 아들 林董이 태어났다. 1688년 2월, 會津으로 이주했다. 4월에 綾州牧使가 되어, 5월에 숙배하러 나오자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했다. 1690년 3월, 痘疫을 피하여 沙橋 중씨가에 우거했다. 1692년 회진으로 돌아와 창계초당을 짓고 거처했다. 1694년(갑술) 환국 후 10월에 개성유수가 되었다. 11월, 남구만과 박세채의 권유로 상경하다가 박세채가 도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하여 체직을 청했다. 47세 되던 1695년(숙종 21), 부제학에 임명되었는데 정월에 사은하고 부임한 며칠 만에 박세채의 부음을 들었다. 7월에 부제학이 되었다. 10월에 입경하자 柳尙運·崔奎瑞가 合辭하여 散班에 머무르게 하고 약물을 지급하도록 청했다. 곧 공조참판이 되었다. 1696년(숙종 22, 병자) 2월 6일, 타계했다. 4월에 아우 林淨이 화순 현감에 제수된 후 운구하여 돌아가 함평의 선영 곁에 장사 지냈다. 1700년 11월, 남평 동쪽에 이장했다. 1708년(숙종 34) 나주 동쪽 金牙面 傑山村에 이장했다.

55)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2 辭, 「斲冰辭」, “族弟得之甫訪余天臺之居, 留止旬日, 讀『離騷』『九歌』以歸. 於其行, 戲爲楚語送之.” 林世讓은 林宏儒의 맏아들로 조부는 林潭이다. 창계의 조부는 林端인데, 임담과 임타는 6촌 사이이다. 『초사』를 읽을 때 『讀書筭錄』에 수록된 「九歌解」를 작성한 듯하다.

56) 斲冰兮船開. 臨江水兮送君歸. 歲晏兮空山. 雲容容兮雪霏霏. 悄獨立兮蘭之皋. 窅離心兮徘徊. 出漱浦兮涉平原. 君. 顧我兮依依. 我屋兮雲間. 縹之兮江波. 深林闐其窈冥. 鳥不鳴兮人不過. 君之來兮幾日. 瞻江月其猶未缺. 千巖靜兮一室寒. 夕烟斂兮夜鶴叫. 悵思君兮不可見. 吟楚騷而延佇. 歸·霏(五微平聲)·徊(十灰平聲)·依(五微平聲), 波·過(五歌平聲). 日(四質入聲)·缺(九屑入聲). 叫(十八嘯去聲)·佇(六語上聲)

### Ⅲ. ‘因文入道’와 ‘喫緊精熟’

창계의 아우 임정은 창계가 淸議의 恢張과 勳戚의 裁制를 위주로 한 사실이 후대에 기억되기를 바랐다. 앞서 보았듯이, 김창협은 1707년 찬술의 『창계선생집』 서에서 “공은 평소의 언론을 한결같이 고정의 뜻에 따랐으나, 유독 조정의 상호 간 이전에 관해서는 늘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라고 서술했으나, 임정은 이 서술에 불만을 가졌다. 崔錫鼎도 김창협 서문의 논조를 반박하되, 도리상 그 서문을 실어야 한다고 권유했다.<sup>57)</sup> 최석정의 「辨疏」 말미에, “저 창계의 학문과 조예의 깊이 등에 대해서는 내가 誄文에서 대략 언급했고 또 장차 묘도문이 만들어질 것이니, 후세 사람들은 절로 알게 될 것이다.[若夫滄溪學問造詣之淺深, 余於誄文已略言之. 又將有墓道之文, 後人當自知之.]”라고 했다. 최석정이 말한 ‘묘도문’은 현재 알려진 李德壽(1763~1744) 찬술의 신도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창계의 비문은 楊江 尹趾仁이 먼저 지었다. 창계의 아들 林董이 윤지인에게 비문을 고쳐달라고 청하고자 했으나, ‘成川’이 만류하는 간찰이 전한다.<sup>58)</sup> 윤지인은 李正英의 셋째 사위로, 소론의 중심인물이다. 윤지인은 임동이 준비한 狀草에 근거하여 비문을 지었는데, 1680년 ‘경신대출척’ 때의 창계의 처신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成川’의 간찰에 나오는 曹雅仲은 曹夏望(1682~1747)이다. 임동은 1687년(숙종 13)에 출생하여 1722년(경종 2) 3월 6일 36세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가 윤지인에게 창계의 비문을 청한 것은 줄년 1722년 이전이지 않으면 안 된다.<sup>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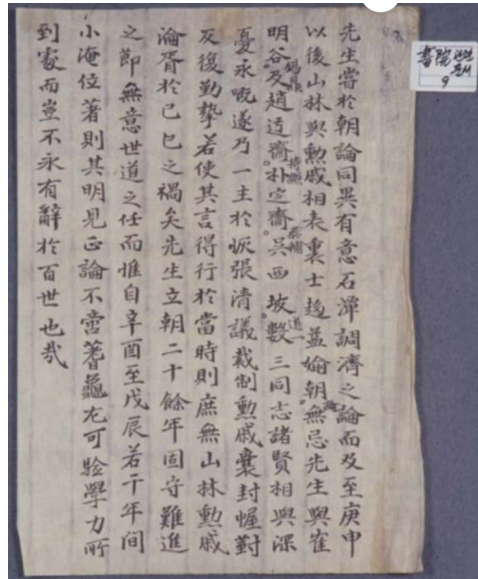
57) 崔錫鼎, 『明谷集』 卷12, 「題滄溪集後」.

58) 碑文事奉述. 此是先生立朝大關節, 而楊江初頭下筆時, 只憑本家狀草, 而狀草全沒之故, 所撰文字, 亦無一言提及. 及見曹雅仲所草庚申一段, 大加稱歎, 而全用其當路楊江, 亦豈無所見而然耶? 伯君所論, 殆近論議云云, 未見其然, 以此請改. 楊江其許之乎? 近來人家請文可作者, 既來之後, 又更紛紜請改, 誠一謬風. 況此碑文中, 如許大節拍, 其可以淺心凡眼, 輒請改出乎? 吾意則決知其不可也.[此紙成川所答]

59) 창계문고에 1717년(숙종 43) 나주목사가 나주임씨 林董에게 戶內 인구현황을 기록하여 발급한 준호가 있는데, 임동의 전처는 海平尹氏, 후처는 坡平尹氏이다. 임동의 4조 관직기록과 그의 두 처의 4조 관직기록이 나온다. 임영의 관직은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으로 기록되었다. 가족원 기록 아래로는 소유노비가 등재되었다. ‘牽奴婢秩’, ‘戶底秩’, ‘외직[外居秩]’으로 나누어 기록되었다. 노비의 규모가 상당하다. 1686년 「林泳男妹和會文記」도 있다.



한편 이덕수의 「滄溪林先生神道碑銘」은 『西堂私載』에 들어 있고,<sup>60)</sup> 『창계선생집』 ‘부록초’에 ‘資憲大夫 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右賓客 李德壽撰’의 2,781자에 달하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滄溪林先生神道碑銘 并序」가 있다.<sup>61)</sup> 이덕수는 창계의 자손인 林翊夏의 청으로 신도비명을 지었다고 했다. 그 찬술은 임종의 졸년 1722년부터 이덕수의 졸년 1744년 사이이다.<sup>62)</sup> 신도비는 곧바로 세워지지는 못했고, 1792년에는 석물 쟁송까지 발생했다. 근년에 金膺顯 書并篆을 入碑하여 세웠는데,<sup>63)</sup>



〈그림 1〉 창계신도비 침입·개작 관련 자료

그 비면과 『서당사재』 수록 신도비명을 대조하면, 창계의 修學記·宦歷記·將卒錄·配位記·子孫錄의 뒤에 붙인 人評과 尙論에, 창계의 아우와 그 후손이 경신년 이후 창계의 정치행동에 관해 기록되기를 바랐던 문제의 단락이 삽입되어 있다.<sup>64)</sup>

『肅宗實錄補闕正誤』 권30, 숙종 22년(1696) 2월 6일(임진), 전 참판 임영의 졸기는 경신년 이후 창계의 정치 행동을 부각시켜, 世評이 그를 ‘眞講官’이라 일컫는다는

60) 李德壽, 『西堂私載』 卷6 神道碑, 「滄溪林先生神道碑銘」.

61) 李德壽 제술의 신도비는 『西堂私載』에는 ‘滄溪林先生神道碑銘’으로 되어 있고, 金膺顯 書并篆을 入碑할 때에 篆額은 ‘滄溪先生神道碑銘’이라고 하되 碑題는 ‘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滄溪林先生神道碑銘’라고 창계의 관직을 적었다.

62) 김학수, 「나주임씨 창계가문의 가계와 역사적 전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주최, 창계집』 완역 기념 학술대회 『창계 임영의 생애와 사상』 논문집, 2020.10.30, 88면.

63) 修學記와 宦歷記, 配位記의 서술과 銘文에 약간 字句 異同이 있다.

64) 始先生愍朝議携貳, 常有意於石潭調劑之論. 及庚申以後, 山林與勳戚相表裏, 士趨益嬖, 則遂與趙迂齋持謙朴定齋泰輔等三四同志, 一意恢張清議, 囊封幄對, 前後眷眷, 使其言得行於時, 庶不至淪胥於己巳之禍矣. 後之撫跡而追想者, 其有不愜然太息於斯乎? 始先生至太息於斯乎, 『西堂私載』無此段

사실을 밝히고, “淸華한 벼슬에 들어가서는 金壽恒 형제의 추천을 많이 받았으나, 능히 초연하게 스스로 지켜서 勳要를 꺾고 淸議를 주장하니, 사류가 더욱 존중하였다. 영리를 좋아하지 않고 의리에 따라 진퇴하여, 湖海에 머무르고 조정에 선 날이 많지 않았다.”<sup>65)</sup>라고 서술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줄기는 또한 창계를 ‘因文入道’의 제1인자라고 평가했다. ‘因文入道’는 詞章에 주목했지만 사장을 도구로 삼고 사장을 벗어나서 도학을 닦았다는 뜻이다. 앞에서 살펴본 창계의 과환력에서 그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선조 때 李滉과 李德弘은 『고문진보』 후집 수록 한유 문의 내면에 자리한 마음의 바름과 싹틔음을 발명했으나, 尹根壽와 崔崐은 『韓文吐釋』에서 ‘因文入道’의 설을 제기했다.<sup>66)</sup> 朴世采 별지<sup>67)</sup>의 용례를 보면 ‘因文入道’의 文은 詞章을 뜻한다. 율곡 이이의 『經筵日記』<sup>68)</sup>에는 “滉之學, 因文入道, 義理精密, 一遵朱子之訓.”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인문입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단, 퇴계도 1541년(중종 36) 11월 泮製에서 「夾江禁耕謝恩表」를 작성했다. 당시 조선 조정은 협강을 공지로 남겨두어 요동인의 점거를 무단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그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만들고자 했는데, 퇴계의 이 사은표는 당시 조선 조정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후 1553년(명종 8) 9월 14일 경복궁에 화재가 나자 대사성으로 있던 퇴계는 「慰安宗廟文」을 제진했으며, 이듬해 동궁과 사정전이 중건될 때 「東宮上樑文」과 「思政殿上樑文」을 제진했다. 그해 12월에는 「景福宮重新記」를 짓기까지 했다.<sup>69)</sup> 후대의 예

65) 『肅宗實錄補闕正誤』 권30, 숙종 22년(병자, 1696) 2월 6일(壬辰). “庚申更化, 首盛經幄, 講說精博, 橫豎皆當, 一時諸名勝莫及焉. 世以眞講官稱之, 聖學之高明, 多有得於此云. 其入淸華, 多被金壽恒兄弟推挽, 而能挺然自持, 黜勳貴主淸議, 士流益重之. 不喜榮利, 進退以義, 棲遲湖海, 立朝無多日. 蓋其志, 欲先格君心, 爲出治之本, 而時勢已不可爲, 遂屢徵不至.” 『肅宗實錄補闕正誤』는 영조 4년(1728)에 李光佐·尹淳 등 少論이 편찬한 것으로, 영조 초에 老論이 편찬한 『숙종실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사서이다.

66) 尹根壽, 『月汀別集』 권3, 「韓文吐釋 下」, “蓋欲求古神聖之道, 在於文字, 爲其餘躅, 而從順職職, 又近於道. 於是知韓公之與紹述庶幾由文入道之不偶然也? 向云不襲蹈前人, 非好奇之爲也. 如何?; 정재철, 「한유 문 전범의 형성과 인식」, 『한국한문학회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110면.

67)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卷第10 書, 「答林德涵別紙」(癸酉五月十一日), “昔者退翁謂寄存齋曰: 安有外嵇阮而內程朱之學乎? 蓋因文入道者, 不無詞章性理互主之病. 此亦豈能遠彼耶?”

68) 『栗谷先生全書』 卷28, 「經筵日記」 1, [起明宗二十年乙丑七月. 至今上四年辛未. 凡七年] 隆慶四年庚午○今上三年, 十二月辛丑. “滉之學. 因文入道. 義理精密. 一遵朱子之訓. 諸說之異同. 亦得曲暢旁通. 而莫不折衷於朱子.”

로, 1890년(고종 27)에 申得求는 黃玪이 구례 만수동에 苟安室을 건립하자 「苟安室記」를 써 주면서, 문장의 오묘함을 극도로 논하는 자는 반드시 「因文入道」를 말하는 데, 황현이 거자업을 벗어나 문장에 전념하고 있지만 다시 문장을 떠나 도를 배울 것을 권면했다.<sup>70)</sup>

창계는 학문 공부에서 「悠泛生疎」를 극복하고 「喫緊精熟」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했다. 졸수재 조성기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유학의 공부는 사물의 粗迹으로 말미암아 一原無間의 실상을 究極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sup>71)</sup> 그런데 창계가 시문에서 지향한 것도 시문 구조의 탄탄함을 통한 주제사상의 치밀한 구현이다.

1672년에 李禧朝(1655~1724)의 청으로 작성한 「靜觀齋李公狀譜後序」에서 창계는 자신의 학문 방향의 전환에 대해 말하고, 스승 靜觀齋 李端相의 학문과 생평을 서술하면서 스스로의 학문과 삶의 방향을 암시했다.<sup>72)</sup> 본문에서는 狀譜를 짜집는 것이 아니라 狀譜가 究言하지 못한 것을 기록했다. 尙論에서 한 인물의 이념과 행동을 충분히 숙지하여 精髓만을 가려뽑고 그 인물을 하나의 老成人의 典型으로서 부각시키되, 志德의 造詣를 세밀하게 추적한 것이다. 창계는 이단상의 학문 방법에 대해 「深以厭煩徑約爲戒, 必欲博觀衆理」라고 서술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창계 자신의 지침이 되었을 터이다.

창계는 이미 16세 되던 1664년(현종 5)에 「義勝記」를 지었다.<sup>73)</sup> 앞서 曹植(1501~1572)은 「神明舍圖」를 작성하고 제자 金宇顙에게 「天君傳」을 짓게 했다. 이 계보는 李楨의 「神明舍賦」로 이어졌다. 창계의 경우는, 林悌의 「花史」나 「愁城志」에서 영향을 받았을 듯하다.<sup>74)</sup> 그런데 「의승기」는 天君이 도적의 제일 요해처 窟海를 정벌하는

69) 심경호, 「이항의 表箋과 上樑文」,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185~217면.

70) 申得求, 『農山先生集』 권7, 「苟安室記」.

71) 趙聖期, 『拙修齋集』 卷6 書, 「答林德涵書」; 이승수 역, 『졸수재집』 2, 박이정, 2001, 148~149면.

72)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6 序, 「靜觀齋李公狀譜後序」; 『靜觀齋先生別集』 卷4 /附錄 拾遺 「狀譜後序」[門人林泳]. 이희조로부터 서문을 부탁받은 것은 정관재 이단상의 사후 4년 뒤였으나, 『정관재집』 별집 수록의 글 뒤에 「壬子八月日 門人錦城林泳謹書」라고 서명했다.

73) 林泳, 『滄溪先生文集』 권16 記, 「義勝記」(甲辰). 天君小說 계보에 속하는데, 이 계보에는 東岡 金宇顙의 「天君傳」을 효시로 하여 白湖 林悌의 「愁城志」, 菊堂 鄭泰齊의 「天君演義」, 滄溪의 「義勝記」, 文無子 李鈺의 「南靈傳」, 歇五齋 鄭琦和의 「天君本紀」, 小隱 柳致球의 「天君實錄」 등이 있고, 또 權重道(1680~1722)의 「安宅記」도 있다.

74) 창계는 여덟 살 때 누이에게 반절을 써달라고 하여 반나절 만에 언문을 깨쳤다고 하므로, 규방의

것을 골자로 삼아, 敬을 상징하는 惺惺翁과 義를 상징하는 孟浩然을 각각 宰相과 爪牙로 설정했다.<sup>75)</sup> 곧, 창계의 「의승기」는 宦海에 나가 敬과 義로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았다. 창계가 남긴 「일록」에 보면 18세 되던 1666년 『谿谷集』의 「神明舍記」에 대해 논평하여 張維가 신명씨와 주인옹을 별개로 설정하고 신명씨가 교만하고 화를 잘 낸다고 묘사한 점을 반박했다. 창계는 천군의 총재로 성성옹을 제시했으나, 『心經附註』 권1에서 謝良佐가 “경이란 항상 성성하게 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것에 근거한다. 천군을 義帝라고 칭한 것은 楚 項羽의 숙부 項梁이 楚懷王을 왕으로 옹립하고 항우가 義帝로 높인 고사를 차용하되, 西楚霸王에 오른 항우가 의제를 살해한 사실은 무시했다. 오행에 해당하는 장기 가운데 心이 火臟에 해당되므로 화덕으로 왕이 되었다고 서술하고,<sup>76)</sup> 『맹자』 「公孫丑·上」浩然之氣章과 연계하여 맹씨 성의 장군을 내세우고, ‘호연’을 차용하여 孟浩然이란 인물을 설정했다.

「의승기」에서 창계는 천군(의제)의 「即位詔」<sup>77)</sup>와 즉위 2년 孟浩然의 「討敵舉兵誓」<sup>78)</sup>는 장단이 고르지 않은 산문으로 작성하되, 간간히 類句를 사용해서 긴축감을 주었으며, 글 전체에서 『맹자』·『서경』·『중용』·『주역』 등 경서와 『사기』·『국어』 등에서 어휘나 개념을 선정했다. 맹호연은 意馬를 타고 忠信甲을 입었으며, 仁義楯을 들고 앞에 勿字旗를 세운 채 대로를 따라 행진하며 규율에 따라 군사를 출동시켰다.

‘여사고답’에서도 소설적 기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 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118~119면.

75) 마음을 천군으로 의인화하는 설정은 『荀子』 「天論」의 “이목구비와 형체는 각각 접촉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 대개 이를 천관이라 한다. 마음은 가운데 빈 곳에 있으면서 오관을 다스리니, 이를 천군이라 한다.[耳目鼻口形, 能各有接而不相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에서 유래한다.

76) 또 『論語』 「衛靈公」에서 顏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면류관을 쓴다.[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라고 했던 말을 끌어와, 夏는 火節에 해당하므로 천군 ‘心’과 연관시켰다.

77) “朕頃者德不有終, 大盜肆虐, 周流八紘, 莫適所從, 賴天之靈, 返于安宅. 繼自今七正九官其交正予, 毋令否德再致向來之亂. 且我家家法, 尊賢爲大, 其令惺惺翁位冢宰行王事, 百官總已以聽.”

78) “嗟汝六師, 咸聽予言! 惟賊侮亂天常, 敗度敗禮, 自古亡其國·敗其家·戕其身, 未必不由此焉. 寧不痛心? 加以頃乘我國之新造, 敢肆其毒, 以至邦國傾覆, 主上播越. 凡有血氣者, 孰不憤慨? 今汝或作吾君之爪牙, 或作吾君之心膂, 或居喉舌之要, 或任股肱之輔. 汝尙一乃力, 勸哉! 唯口出好興戎, 予言不再.”

그리고 토벌군을 이끌고 첫 번째 요해처 崖海를 지나가서 名利關을 통과하고 忿山을 무너뜨리고 慾壑을 메운 후 도적을 평정했다. 의마는 『유마경』의 ‘心猿意馬’에서 취한 것이다. 勿字旗는 『논어』 「안연」의 四勿章에서 기원하는데, ‘勿’ 자의 생김새가 깃발과 닮았기 때문에 물자기라고 한다. 이것은 조식의 「신명사도」에서 성곽을 지키는 군사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大壯旗’를 삼면에 세운 것과 차별된다. ‘大壯’은 大壯卦를 의미하는 듯하다. 대장괘 象傳에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雷在天上, 大壯, 君子以, 非禮弗履.]”라고 했다.<sup>79)</sup> 『朱子語類』 권41에 ‘非禮勿視’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說文』에 ‘勿字는 깃발의 다리(갈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 깃발을 한번 휘두르면 三軍이 모두 후퇴하니, 공부에 다만 勿字 위에 있다. 조금이라도 非禮를 보면 곧 이를 금지해서 이겨내야 하니, 이겨내기만 하면 곧 禮로 돌아갈 수 있다.<sup>80)</sup>

한편 창계는 문집에 曹漢英 묘지명, 洪載元 묘지명, 曹尙治 묘갈명, 趙錫馨 묘표음기, 申汝挺 묘표음기를 남겼다. 조상치 묘지명은 생육신 褒揚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창계는 그 墓誌에서, “세조가 왕위를 물려 받자 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비석에 글을 써 새기기를 ‘魯山南副提學進人曹尙治之墓’라 하고 自序에 ‘노산조라고 쓴 것은 오늘의 신하가 아님을 밝힌 것이고 벼슬 품계를 쓰지 않은 것은 임금을 구제하지 못한 죄를 드러낸 것이며 부제학이라 쓴 것은 사실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이고 포인이라 쓴 것은 망명하여 도피한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돌을 무덤앞에 세우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sup>81)</sup>

79) 『續兵將圖說』에 따르면, 깃발에는 塘報旗, 巡視旗, 令旗, 主將腰旗, 中軍腰旗, 坐纛旗, 司命旗, 朱雀旗, 靑龍旗, 騰蛇旗, 白虎旗, 玄武旗, 紅神旗, 藍神旗, 黃神旗, 白神旗, 黑神旗, 紅高招旗, 門旗, 角旗, 清道旗, 金鼓旗, 肅靜牌, 豹尾旗, 千總旗, 把總旗, 把總腰旗, 哨官腰旗, (前)營將認旗, (前)哨官認旗, 旗總旗, 隊總旗 등이 있고, ‘大壯旗’는 없다.

80) “『說文』謂勿字似旗脚, 此旗一麾, 三軍盡退. 工夫只在勿字上, 纔見非禮來則以勿字禁止之, 纔禁止便克己, 纔克去便能復禮.”

81)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7 墓文, 「有明朝鮮國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致仕曹公墓碣銘 并序」.

한편 창계의 『日錄』에는 疏筭 양식에 대해 논한 말이 있다. 즉 창계는 逐條 형식을 비판하고 功利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시행할 만한 내용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을 중시했다.<sup>82)</sup> 조성기는 창계에게 致用之學을 위해 『陸宣公奏議』를 읽으라고 권했다.<sup>83)</sup> 『육선공주의』는 고려 말부터 조선유학의 민본주의 사상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李穀은 「鄕試策」의 “재용의 盈虛와 호구의 증감은 바로 왕정의 득실의 단초가 되고 國體의 안위의 근본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서는 깊이 생각해야 마땅한 일이다.”라는 주제의 물음에 대해 對策을 작성하여, 陸贄의 「論兩河及淮西利害狀」<sup>84)</sup>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재물은 백성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상하면 그 근본이 상하게 된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그렇다면 재물이 있는데 백성이 없는 경우도 없다고 할 것이요, 재물이 없는데 백성이 있는 경우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역』에서 ‘어떻게 백성을 모으는 것인가.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이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것입니다.”라고 했다.<sup>85)</sup> 단, 『육선공주의』가 변문 투식을 지니는데 비하여, 창계는 소차에서 변문 투식을 벗어났다.

1681년(숙종 7) 가을에 창계는 호남 試官으로 갔다가 이후 서울로 돌아와 9월 26일 西學儒生 試取 시관, 10월 소과 시관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창계는 음력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77일간의 행적을 『辛酉日錄』으로 엮었다. 시관의 공무와

82) 『滄溪先生文集』 권25 日錄 丙午(1666, 현종 7).

83) 이와 관련한 조성기 서찰이 창계문고에 있다. “昨晤頗穩, 良幸良幸. 所告熟觀『陸宣公奏議』一語, 未知尊肯位得及否? 此書說得世間事情, 是非利害, 究極根原, 本末俱舉, 纖悉條達, 委曲懇至. 左右誠加披閱, 當知鄙言之爲不誣矣. 竊揆左右今日時義, 雖不出爲高, 然而終不得不一出, 則前輩所云, 出而無所事者, 誠不可不可預以爲憂. 如欲憂此, 不可舍是書而他求. 幸勿以分却向裡意思爲念, 拌得一兩月工夫, 刻意精看, 期於有所得而止如何? 鄙言雖迂, 終當有補於高明致用之學, 故昨告既丁寧, 而今又不能忘言. 幸諒之. 移寓若在江外, 則相蹤稍遠, 會面尤未易, 只用瞻悵無已. 餘委, 此仰候起居, 謹不宣. 卽日, 聖期頓.”(『背脫』林正字侍史, 德涵上候狀署押謹封.)

84) 『資治通鑑』 권228, 「唐紀」, 德宗 建中 4년(783) 조에, 육지의 상소 가운데 “사람은 나라의 근본이고, 재물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상하면 그 근본이 상하게 되고, 그 근본이 상하게 되면 가지와 줄기가 시들게 된다. [人者 邦之本也 財者 人之心也 其心傷則其本傷 其本傷則枝幹顛瘁矣]”라는 부분을 인용해 두었다.

85) 李穀, 『稼亭集』 권13, 「鄕試策」. 조선에 들어와 『육선공주의』는 경연에서도 강론되었다. 柳成龍(1542~1607)은 선조 28년(1595) 朝講에서 육지는 王道를 지향하여 군주를 보필한 伊尹과 傳說에 견줄 만한 인물이므로 『당육선공주의』를 강할 것을 청했다. 英祖와 正祖는 『육선공주의』를 주의 체외 전범으로 계시하게 된다. 심경호, 『『당육선공주의』 해제』, 심경호·김우정 공역, 『역주 당육선공주의』 1-2, 동양고전역주총서111-112, 전통문화연구회, 2018.12.30.(1); 2019.11.30.(2).

사적 일정, 試所의 상황, 試題 선정 과정, 落幅紙 활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성 있는 기억의 저장’에 충실했다.

#### IV. 창계의 학술 규모와 학문 방법

창계의 학문은 道伴들과의 토론 및 서찰 왕복을 통해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졸수재 조성기와의 설전에 가까운 토론은 학적 개념과 방법, 체계, 이념과 실천의 간극 조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극이 되었다. 조성기의 학문 내용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평가는, 조성기가 작고한 후, 1730년(영조 6) 5월 28일, 부제학 李德壽가 조성기의 증직을 청하면서 올린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덕수는 학문에는 이치를 窮究하는 것과 몸가짐을 敬謹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성기의 몸가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이치를 궁구한 것은 그 境地가 뛰어나다고 칭송했다. 즉, 조성기가 높고 밝은 경지에 마음을 두고 풍경과 화초에 흥취를 붙이는 것은 소옹과 비슷하고, 고금의 史籍을 관철하여 치란의 이치를 궁구한 것은 여조점에 근사하며, 고담준론이 강하의 물결같이 용솟음친 것은 陳亮과 같고, 근본에 돌아가서 만 가지 이치를 종합한 것은 반드시 考亭(朱熹)을 본받았으니, 우리나라 3백년 이래 견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sup>86)</sup>

창계는 窮究와 敬謹의 두 방면에서 노력했다. 敬謹은 곧 主一無適과 慎獨을 통한 내면 수양의 공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창계가 18세에 七省例<sup>87)</sup>를 지키다가 翫專一之法을 익힌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sup>88)</sup> 窮究는 格物致知를 뜻하되, 생활세계 속에서 理의 보편적 특성을 탐구하는 일을 말한다. 창계는 敬謹만이 아니라 窮究에도 대단히 주목했는데, 이는 조성기의 학문 태도와 유사한 면이 있었다. 창계는 『日錄』 丙午(1666, 현종 7) 기록에서, 『대학』 修身章을 읽으면서 ‘修心’이 아니라 ‘修身’이라고

86) 『영조실록』 권26, 영조 6년 5월 28일(을미). 朴趾源은 「許生傳」에서 당대의 경세가로 拙修齋 趙聖期和 礪溪居士 柳馨遠을 들었다.

87) 마음에 흡족한 일과 스스로 속인 일의 여러 단계에 따라 동그라미, 점, 획, 무표시를 사용하고, 마음의 변화에 따라 획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다. 이윽고, ‘반은 스스로를 속이고 반은 마음에 흡족한[半欺半歎]’ 경우 점을 찍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으면 곧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일이지는 반반이 될 리가 없다고 반성했다. 自反의 철저함을 엿볼 수 있다.

88) 이영호, 「창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한 것에 대하여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종일토록 성찰해서 다음 결론에 이르렀다.<sup>89)</sup>

대개 마음은 몸의 주재자이며 무릇 몸이 하는 일은 모두 마음이 시키는 것이지만, 마음은 안이고 몸은 밖이라 여기에 이 둘의 차이가 있으니, 저 바깥에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곧장 마음이라고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몸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과 꼭 같다. 무릇 나라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비록 임금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라에 정사가 번잡하고 세금이 무거우며 신하가 직무를 소홀히 하며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 의당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임금 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는 일은 그 본원을 끝까지 궁구한 다음에야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창계는 程復心の「心學圖」와「圖說」을 보면서, 「심학도」의 「慎獨」 아래에 그려진 「克復」·「心在」 등을 「遏人慾」이라 하고 「戒懼」 아래에 그려진 「操存」·「心思」 등을 「存天理」라고 하여, 두 가지를 분리한 것은 심하게 천착했다고 보고, 또 「心在」와 「心思」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의심했으며, 「求放心」은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급선무인데도 뒤로 돌렸다고 의심했다. 그리고 「도설」에 “형기에서 나왔으므로 인심이 없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형기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인심인데, 「不能無」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았다. 율곡이 퇴계에게 보낸 서찰에 이 논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율곡이 의심했던 점<sup>90)</sup>이 그대로 자신의 의심과 일치하여쾌재를 불렀다고 했다.

89) 『滄溪先生文集』 권25, 日錄 丙午(1666, 현종 7).

90) 李珥, 『栗谷先生全書』 卷9 書1, 「上退溪先生問目」, “林隱程氏心學圖, 可疑處甚多. 試言其略, 則大人心乃聖人之心, 是不動心從心之類也, 何以置之道心之前耶? 本心則雖愚者亦有此心矣. 若大人心則乃盡其功夫, 極其功效, 能全本心者也, 豈可不用功而自有耶? 且以遏人欲存天理, 分兩邊功夫, 已爲未安, 而其功夫次第, 亦失其序. 心在心思, 亦似易置. 既曰慎獨克復心在, 而乃曰求放心, 雖反覆推之, 終是失序. 閣下推衍, 至以顏子爲求放心, 此亦未安. 大抵聖賢之言, 有精有粗, 不可就其精者而強求其粗, 就其粗者而強求其精也. 孟子求放心之說, 泛爲學者言也, 是粗底也. 孔子克己復禮之說, 專爲顏子而言也, 是精底也. 今於其精底, 必抑而卑之, 使爲粗. 於其粗底, 必引而高之, 使爲精, 則雖是說得行, 豈是平正底道理耶? 且以慎獨置之遏人欲一邊, 則凡省察之事, 皆當屬焉. 以戒懼置之存天理一邊, 則凡涵養之事, 皆當屬焉. 然而盡心是知而乃屬乎涵養, 正心是行而乃屬乎省察, 此亦不可曉也. 珥意此圖, 重文疊說而已, 別無意味, 恐不必取也.”



다만, 율곡의 설은 「圖」에 대해 논했을 뿐이고 「說」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서 ‘不能無’ 세 글자를 논하지 않았으므로,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율곡은 聖賢之言은 精粗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것을 가려서 의의를 논해야 하는데, 정복심의 도설은 이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학도」는 ‘重文疊說, 別無意味.’라고 판정했다. 『宣祖實錄』 2년(1569) 6월 20일 記事에 따르면, 기대승은 퇴계가 정복심의 『四書章圖』에 나오는 「心統性情圖」·「西銘心學圖」등을 근거로 聖學圖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sup>91)</sup> 그 후 정조는 春邸에 있던 1772년(영조 48)에 『重訂四書輯釋』을 중간하고자 했고, 『羣書標記』에서 『四書大全』과 이 책과의 우열을 논하기도 했다. 창계는 율곡의 뜻을 따라, 원·명 방각본 계통 經解書의 해악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창계는 『일록』의 병오년 기록에서, 情과 性を 각각 氣와 理에 배정하는 이분법 논리를 부정하고, 율곡이 ‘性是理 情是氣’라 한 말도 이분법 논리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sup>92)</sup>

창계는 젊은 시절 三字銜을 띠고 館閣文을 작성했지만, 이미 이 시기에 격물치지와 하학상달의 공부법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諸生에 대해서도 그 공부법을 강조했다. 『창계선생집』에 창계가 작성한 5수의 책문이 남아 있는데,<sup>93)</sup> 그 책문의 내용을 통해서 창계의 학적 지향을 추측할 수가 있다.

우선 「책문 1」은 올바른 독서에 대해 물었다.

謝良佐(1050~1103)가 정호 앞에서 역사책을 놓고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암송하자, 정호는 “이렇게 많이 기억하는 것은 완물상지이다.”라고 했다. 尹焞(1071~1142)은 정이를 만난 지 반년 만에야 『대학』과 「西銘」을 읽었으며, 內省涵養을 중시하여 敬 공부를 위주로 했다. 橫渠가 학자들을 가르칠 적에 암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晦翁은 「學古齋銘」에서 반복하여 암송하는 일을 경계했다. 회옹 자신은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는 것을 중시했는데, 「誌公和尚[金陵寶誌(418~514)]大乘贊」의 말처럼 ‘尋行數墨’으로 귀

91) 『宣祖實錄』 卷3, 宣祖 2年(1569, 己巳) 6月20日(壬辰). 한편, 程復心の 『四書章圖櫟栝總要』는 日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에 至元三年(1337) 德新書堂刻本이 있다.

92)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25, 「日錄」 丙午.

93) 林泳, 『滄溪先生文集』 卷16 雜著, 「策問 五首」.

결될 우려가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조성기와의 왕래 서찰에서 거듭 환기된 문제이다. 세상에서 경서를 應講의 용도로 삼고 子史를 표절의 자료로 삼는 것을 교정하려는 뜻을 지닌다. 대충 대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實理를 모르면서 고증을 능사로 삼으며, 語句에 매몰되거나 실속 없이 섭렵하기만 하는 것은 모두 좋은 독서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 주희도 책문에서, “대개 혹 깊은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근사한 데에 뜻을 독실하게 두며, 혹 고증이나 믿고 지극한 이치에는 어두우며, 심오한 것을 힘쓰는 자는 방탕하여 근본이 없고, 이록을 구하는 자는 섭렵했지만 근본이 없다.[蓋或不求甚解而篤意於近思, 或特爲攷證而昧於至理, 務深眇者放宕而不根, 干利祿者涉獵而無本.]”라고 질타한 바 있다. 창계는 정이와 관자의 공부법을 들었다. 『二程遺書』 권15에 보면, 정이는 “옛날의 학자는 학문을 함에 충분히 연구하여 흡족함을 얻고 나아가 먼저 하고 뒤에 할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의 학자는 한 자리의 이야깃거리로만 삼고 고원하기만 힘쓸 따름이다. 나는 杜元凱(杜預)가 좌구명의 문장을 평하여 ‘마치 강해가 대지를 잠기게 하고 고택이 만물을 적시듯이, 시원스레 얼음이 풀리듯 편안하게 조리가 통한 뒤에야 터득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사랑한다.[古之學者, 優柔厭飫, 有先後次序, 今之學者, 却只做一場話說, 務高而已. 常愛杜元凱語: ‘若江海之浸, 膏澤之潤, 渙然水釋, 怡然理順, 然後爲得也.’]”라고 했다. 또 『管子』 「內業」에는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다시 생각하라. 생각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면 귀신이 깨우쳐 주나니,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기를 극치에 이르도록 썼기 때문이다.[思之思之, 又重思之. 思之而不通, 鬼神將通之, 非鬼神之力也, 精氣之極也.]”라고 했다.

「책문 2」는 정치의 규모를 논한 것으로, 이 역시 조성기와의 논쟁에서 주요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다.

「책문 3」은 經書를 註解 없이 이해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策題는 제1 책제와 연결되어 학문의 방법에 대해 성찰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특히 경학에서 註解 활용의 한계에 대해 경고했다. 창계는 『맹자』 「離婁 下」의 “군자가 깊이 나아가 기를 도로써 함은 자득하고자 해서이니, 자득하면 처하는 것이 편안하고 처하는 것이 편안하면 자퇴함이 깊고 자퇴함이 깊으면 좌우에서 취하여 씬에 그 근원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득하고자 하는 것이다.[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則居之安, 居之安則資之深, 資之深則取之左右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라

고 한 말에 따라 自得을 중시했다.

「책문 4」에서 창계는 학문에서는 講論이 필수적이라고 力說했다. 그리고 『논어』 「述而」에서 공자는 “덕이 닦이지 못함과 학문이 강습되지 못함과 의를 듣고 옮겨 가지 못함과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이다.[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라고 했던 말을 환기하여, 불건전한 講學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책문 5」에서 창계는 당시의 선비들이 심성에 주안을 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조정에서는 현자의 부족을 탄식하고 백성들은 근심하고 군사들은 원망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고 진단하고, 현자, 백성과 군사가 제대로 길러지도록 하려면 어떤 방도를 써야 하는지 물었다.

이 다섯 책문들은 1680년(숙종 6) 창계가 중부 林相儒의 병환을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하고 이어 성상의 학문에 대해 논한 소(「引疾乞退仍論聖學疏」)에서 학문의 지향과 방법에 대해 논한 내용<sup>94)</sup>과 맥이 통한다. 학문은 道를 좇고 道로 향해야 하는데, 도는 자기 한 몸으로부터 한 집안, 한 나라, 광대한 천지, 번만한 사물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어서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마땅하고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성실하다. 책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의심의 단서가 많을 것이고 자신을 성찰할 때에는 부끄러워하는 뜻이 있을 것인데, 의심과 부끄러움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好消息’이라고 했다. 창계는 성현의 글을 볼 때 글자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뜻을 통달하여,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아 의심을 한 뒤에 생각을 지극히 하고 물어 분변함으로써 점차 명료한 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690년(숙종 16) 1월 26일 ‘琬’이 창계의 서찰을 받고 답장을 하여, 창계가 『十三經注疏』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양이 많아서 어떻게 할 지 의견을 묻는 간찰이 남아 있다. ‘琬’은 반년 동안 소식이 닿지 않던 차에 창계로부터 두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 기뻐하고, 창계의 권면에 따라 자신이 『주역』을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세채도 『십삼경주소』를 비롯한 많은 책들을 ‘琬’으로부터 빌려 본다고 했다. 『창계선생문집』에 「봉은사에서 차운하여 유집중에게 올리고 이어 신공헌 완에게 드린다[奉恩寺次奉柳集仲仍呈申公獻 琬]」 등의 시가 있어, ‘琬’은 申琬(1646~1707)<sup>95)</sup>

94) 林泳, 「引疾乞退仍論聖學疏」, 『滄溪先生文集』 卷3 疏劄.

95)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서인으로서 남인 權大運·閔熙 등을 공격했다. 1694년 예조판서를

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완은 43세 되던 1688년 대사간을 거쳐 10월에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1689년 3월에 모친 全義李氏의 상을 당하고 1690년에 생부 申汝拭의 상을 당했으며 1691년에는 생모 韓山李氏의 상을 당했다. 48세 되던 1693년(숙종 19) 洪州牧使가 된다. 임영의 서찰을 받을 때 상중이었으므로 ‘省式’이라 했다.<sup>96)</sup> 이로써 창계가 『십삼경주소』를 열람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으나, 『창계선생문집』의 시문을 통해서도 그 연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창계는 經解를 筭錄의 형태로 남겼다. 곧, 「讀書筭錄」이 『창계선생문집』 권19~24에 정리되어 있다.<sup>97)</sup>

『독서차록-맹자』는 『사서대전』을 통한 경전 학습을 자신의 삶을 응시하고 성찰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不動心章을 『대학』의 원리를 구현하는 논리로 이해하고, 理가 준칙이 된다는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유행과 변화는 氣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군신 관계의 의리에 대한 인식, 당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존재로서의 자의식, 부귀의 추구하고 인의 예지의 실천에 대한 반성이 돋보인다.<sup>98)</sup>

거쳐 1700년 우의정이 되었다. 이때 禧嬪張氏의 처벌완화를 주청했고 時務 8조를 올렸다. 1703년 영의정에 오르고 平川君에 봉하여졌다. 1706년 유생 林簿로부터 앞서 1701년 세자에 대한 모해설이 있었을 때 推鞠에 참여하여 규명을 잘못했다는 탄핵을 받고 파직당했다. 『綱庵集』이 있으나, 여기 소개하는 서찰은 들어 있지 않다.

96) “(전략) 平日所學, 雖有校正之役, 謹厚敦篤, 多聞博識, 實已世之罕見, 每爲痛情, 尤切如望, 而況兄常以道義相交, 別後泛然. 親戚之誼, 其所傷動, 而後如何千里專件致異? 足見古人生葛之義, 感歎感歎. 坡山玄丈之作, 海正之行用章, 適留此處, 故書封即爲傳送, 使之即入進中矣. 『十三經注疏』一事, 則留在弟處一事, 則玄丈借去, 今若送還, 則兄之求見至此, 敢爲奉送, 以助探討做工之業, 而但卷帙浩穰, 幾至半駭, 恐難運致於遠路, 以此爲慮耳. 信便恐難逢, 雖有信便, 負重則亦難運, 惟在商量, 更示之耳. 呂州葬窆之計, 未知兄所占新山在於何處耶? 即今世事如此, 於事尤難辦, 恐難容易爲之矣. 碑石, 今已刻完, 當趁陰刻豎立時, 待日暖, 即使一本與覽爲計. 道深令可書同封爲覽耳. 時事如此, 兄之出處, 即已定矣. 會面之期, 渺然難量, 只自向風姑望而已. 筆柄, 弟乃乏絕, 故上惟致放呈去, 愧歎愧歎. 歲前書與新曆及臘劑, 同封以呈矣. 未知皆有傳達? 爲餘, 交書而能盡. 只此, 不備式. 庚午正月二十六日 卽弟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실의 관독문에서는 ‘之罕見’ 이하 ‘即使一本與覽爲計’를 ‘庚午 正月二十六日 卽弟 琬’의 뒤에 두었으나,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다.

97) 권19 『詩傳』·『書傳』, 권20 『周易』, 권21 『大學』·『中庸』·『論孟讀法』·『論語』, 권22 『孟子』·『小學』, 권23 『性理大全』·『近思錄』·『二程全書』·『禮記』·『儀禮』·『家禮』, 권24(附) 『栗谷別集疑義』·『九歌解』.

98) 함영대,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 『일록』과 『독서차록-맹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197~225면.

『독서차록·주역』의 「序」에서 창계는 “역은 理이다. 理의 항상 됨이 번역이기 때문에 易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程傳』과 『本義』는 주해로 인해서 辭를 알도록 하고 辭로 인해서 卦와 象을 살펴 그 理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주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辭에 부득이한 점이 있어, 『정전』과 『본의』가 다른 주해를 하고 여러 학자들이 옳고 그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문을 ‘難曰’로 제기하고 ‘答曰’로 그 의문을 풀되, 끝내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難曰’만을 둔다고 했다. 『주역』이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게 된 데에는 지극한 이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꽤 이름은 문왕 이전에 있었고 ‘원형리정’ 등의 과사는 문왕이 계술했다고 보았던 주자의 견해를 지지했다. 「總目」에서는 주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용어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창계는 상수역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하다. 젊은 시절의 『일록』에 보면, “하루 종일 『皇極經世書』와 『先天窺管』을 보았는데, 대체로 읽기는 무척 힘들고 얻은 것은 별로 없어 개탄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창계는 淸三百註를 단시간에 이해할 만큼 數理曆法에 밝았으나 상수학에 관한 글은 현재의 『창계선생문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서차록』에 주목하면, 창계의 학술 규모와 방법에 대해 다음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창계는 경문의 뜻을 자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원·명의 주해, 필기잡록의 관련 논설을 정주학의 주해와 대조하는 일을 회피했다.<sup>99)</sup>

99) 명칭 학자들과 조선 후기 학자들은 주희의 『集註』·『精義』·『或問』·『語類』 사이에 初晩의 차이를 따지고, 이에 따라 定不定을 논했다. 명나라 영락 연간에 『사서대전』이 간행된 이후, 蔡淸의 『四書蒙引』은 주자의 설과 『사서대전』의 小註를 비교 검토하되, 小註 異說을 답습했다. 청나라 초 呂留良이 사서의 주자 설과 소주의 설을 검토했다. 조선에서도 율곡 이이는 선조의 명으로 『사서대전』 소주를 산정하여 『四書小註圈評』을 편찬했다, 이후 宋時烈은 『精義』를 『혹문』과 대조하여 『論語或問精義通攷』를 편찬하고, 『주자대전』 수록의 서간문을 연구했고, 權尙夏는 소주의 문제를 거듭 언급했으며, 金昌協은 『朱子大全節疑問目』을 저술했다. 이 과정에서 주자설의 早晚 차이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이때 李滉霖 撰, 李禎 校訂의 近譬堂本 『四書朱子異同條辨』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 참고가 되었다. 영조의 세자 시절 사부 李顯益(1678~1716)은 『사서주자이동조변』을 경해에 사용하고, 『사서대전』의 범례를 개정하고자 했다. 한편 李瀾(1681~1763)은 명대 중엽 이후의 고증적 지식학에서 영향을 받아, 필기잡록과 제자백가, 경해서들을 집록하여 경문의 재해석하는 일에 집중하고 지적 관심을 制度·文物·度數에까지 확대했다. 창계의 『독서차록』은 규모의 확장을 의도하지 않았다.

둘째, 창계는 춘추통감류 및 사서의 ‘兼看’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창계는 역사고사를 소재로 하는 程式詩에 뛰어났고, 간간이 역사를 소재로 하는 詠史詩를 지었다. 하지만 춘추통감을 학술의 본격적인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것은 주희가 先經後史의 독서공부법을 주장한 것<sup>100)</sup>과 다르다. 창계는 胡寅의 『讀書管見』의 춘추 의리학과 거리를 두고, 춘추통감류, 사서는 물론 銅鑑類에도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 V. 결어

창계는 이른 나이에 공령문과 변려문을 익혔다. 과거에 급제한 이후 숙종 조 난국에서 知製敎로서 관각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창계는 점차 窮究와 敬謹의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았다. 1672년 8월에 찬술한 「靜觀齋李公狀譜後序」에서 창계는, 자신이 이단상의 문하에 있을 처음에도 詞章之學을 좋아했다가 한 해 뒤 朱子書에 심취하여 학문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곧 ‘因文入道’의 전향을 自述한 것이다. 이 전향은 전자의 완전한 廢棄가 아니라 止揚이다. 창계의 경우 詞章之學은 국가이념을 제시하면서 국권을 장식하는 탄탄한 도구가 되었고, 강학의 내용을 반영하여 ‘悠泛生疎’를 극복하고 ‘喫緊精熟’의 문장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sup>101)</sup>

창계는 미발지심을 자각하고자 분투했으며, 경학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창계의 학술 규모와 범위는 동시대 혹은 후대 학자들의 그것과 비교된다. 일례로 남인 계열의 李玄錫(1647~1705)과 黃德吉(1750~1827)의 도식을 참고로 할 수 있다. 李玄錫은 大丈夫의 일을 以精思實踐爲學과 以經濟世務爲業의 둘로 보고, 四書五經의 勉強 以外에 ‘諸史百家’의 通覽을 重視했으며, 義理家·經綸家·文章家·時務家·兵家·游藝家の 六家를 새로 制定해서 ‘游齋六家’라 하고 주요서적을 열거했다.<sup>102)</sup>

100) 『朱子語類』卷11, 132章, “先語語孟, 然後觀史, 則如明鑑在此 而妍醜不可逃. 若未讀語孟中庸大學 便去石史, 胸中無一箇權衡, 多爲所惑.”

101) 훗날 정조는 어록을 『일득록』으로 정리할 때 文學, 政事, 人物, 訓語로 분류했는데, 文學은 文과 學의 결합이며, 그 문은 곧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詞章이었다.

102) 李玄錫은 『明史綱目』 30餘冊을 脫稿하던 중에 병으로 죽었다. 1726년(영조 2)에 왕명으로 후손들의 校正을 거쳐 官에서 芸閣活字로 간행하여 筵講에 사용했다. 그러나 『明史綱目』에 李朝의 璿系를 誣陷한 朱璘의 史評이 添入되어 있다는 이유로 官爵이 追削되었다. 李玄錫, 「讀書雜錄」,

이에 비해 黃德吉은 1820년(순조 20)에 「讀書次第圖」를 작성해서, 주자학의 학문에 들어가는 독서의 차례를 先讀, 次讀, 兼看으로 단계화하여 각각 서목을 구별했다.<sup>103)</sup>

先讀：小學，大學，論語，孟子，中庸[이상 兼或問]，近思錄兼二子粹語，心經，家禮  
次讀：書傳，詩傳，周易兼啓蒙，禮記，春秋兼三傳，二程全書，朱子大全兼語類，伊洛  
淵源錄兼理學通錄，性理大全

兼看：綱目續綱目，資治通鑑等諸編年史，歷代正史，東國諸史，文章正宗楚辭等諸家書

이현석과 황덕길과 비교할 때 창계의 학문은 범위면에서는 주자학의 정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해에서는 권위적 언설을 호도하거나 의존하는데 머물지 않았다.

창계의 저술 가운데 『독서차록』은 후대에 영향을 주었다. 정조의 經史講義 가운데 經說 條間에는 창계의 경설이 다수 인용되어 있다고 한다.<sup>104)</sup> 또한 낙론 계열의 李基慶(1756~1819)은 『東儒經說』을 엮으면서 창계의 설을 취했다.<sup>105)</sup> 그리고 金在魯(1682~1759)는 원나라 陳皓의 『禮記集說』을 보충하여 『禮記補註』를 엮을 때 창계의 『독서차록』에서 예기설을 인용했다. 徐榮輔(1759~1816)는 『禮記筭錄』에서 『예기』 「檀弓 下」의 「瞿然日呼」를 분석하면서 김재로의 『예기보주』로부터 창계 설을 인용했다.<sup>106)</sup> 창계의 학문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이 몇몇 사례로 간단히 서술할 수는 없다. 창계와 조성기의 탁마와 각각의 차별적 성향을 살피면서 창계의 학문 내용을 향후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3.10.27

심사일: 2023.11.24

게재확정일: 2023.12.26

『游齋先生集』 卷22 雜著下;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특히 『管子』와 『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 한국실학학회, 2007, 365~405면.

103) 黃德吉, 『下廬先生文集』 卷8 雜著, 「讀書次第圖 並說」. 37세 되던 1786년(정조 10, 병오)에는 '小學定例'에 의거하여 「東賢學則」을 편집해서 초학의 '察言求其心. 考蹟以觀其用'을 강조했다. 黃德吉, 「東賢學則序」(丙午), 『下廬先生文集』 卷10 序.

104) 이명찬, 「滄溪와 三淵의 詩經說과 正祖 詩經講義의 相關性」, 『詩話學』 3·4, 동방시화학회, 2001, 365~385면.

105) 晦齋·退溪·栗谷·沙溪·尤庵·市南·滄溪·三淵·農巖·芝峯 등으로 제한했다. 이경훈,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의 考察」,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1~41면.

106) 徐榮輔, 「禮記筭錄」, 『竹石館遺集』 제8책.

## 참고문헌

- 林泳, 『滄溪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159, 민족문화추진회, 1995; 『국역 창계집』, 한국고전번역원, 2016~2020
- 林泳, 『滄溪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
- 滄溪文庫 소장 자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고문서집성』 67권 ‘나주임씨 창계후손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趙聖期 著, 이승수 역, 『졸수재집』 1-2, 박이정, 2001
- 程復心 著, 전병욱 역, 『四書章圖櫟括總要』 상중하, 세창출판사, 2018
- 陸贄 著, 심경호 · 김우정 공역, 『역주 당육선공주의』 1-2, 동양고전역주총서111-112, 전통문화연구회, 2018.12.30.(1);2019.11.30.(2)
- 김광순, 『친군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 박현순, 「『창계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0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2, 증보본, 태학사, 2012
- \_\_\_\_\_,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 윤주필 역, 『조선 전기 우언소설』, 한국고전문학전집 014, 문학동네, 2013
- 이우성, 『한국고전의 발견』, 한길사, 2000
- 조성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 홍원식 외,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 강혜규, 「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한국유학사상사대계』 II, 한국국학진흥원, 2005
- 권현준, 「滄溪 林泳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 김광순, 「창계의 생애와 문학」, 『퇴계학과 한국문화』 14,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86
- 김학수, 「나주임씨 창계가문의 가계와 역사적 전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주최, 창계집 완역 기념 학술대회 『창계 임영의 생애와 사상』 논문집, 2020.10.30
- 박석무, 「17~8세기 호남유학의 전통」, 『한국한문학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제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2020
- \_\_\_\_\_, 「이항의 表箋과 上樑文」,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 오종일, 「滄溪 林泳의 學問과 性理說」, 『東洋哲學研究』, 22, 東洋哲學研究會, 2000
- 이경훈,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 이병찬, 「滄溪와 三淵의 詩經說과 正祖 詩經講義의 相關性」, 『詩話學』 3·4, 동방시화학회, 2001
- 이연순, 「〈義勝記〉의 주제 의식 고찰」, 『서강인문논총』 3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이영호, 「朝鮮後期 朱子學의 經學의 變貌樣相에 대한 一考察: 滄溪 林泳과 息山 李萬敷의 『大學』解釋과 異端觀을 中心으로」, 『漢文教育研究』 17, 한문교육학회, 2001
- \_\_\_\_\_, 「창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 이종범, 「滄溪 林泳의 學問과 政論」, 『韓國人物史研究』 9, 한국인물사학회, 2008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 \_\_\_\_\_, 「임영의 퇴계선생어록」,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가, 2007
- 전병철,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 공부: 「신명사도명」 관련 남명학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재해석의 면모와 시대적 의미」, 『남명학연구』 2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9
- 정우봉, 「滄溪 林泳 자료의 문헌적 검토와 산문 창작의 일면」,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 정후수, 「德水慈氏橋碑銘研究」, 『동양고전연구』 13, 동양고전학회, 2000
- 조성산, 「17세기 후반 趙聖期の 學問傾向과 經世論」, 『한국사학보』 10, 고려사학회, 2001
- 진재교, 「滄溪 林泳의 漢詩 研究: 自己 省察과 求道の 情感」,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 최재남, 「창계 임영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함영대, 「창계 임영의 내면적 성찰과 경학-『일록』과 『독서차록-맹자』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 허원기, 「天君小說의 心性論的 意味」, 『古小說研究』 11, 韓國古小說學會, 2001

## A Research on Ch'ang'gye Yim Yŏng's literature and learning

Sim, Kyung-ho

Ch'ang'gye (滄溪) Yim Yŏng (林泳, 1649-1696) started studying with Yi Tansang (李端相) at the age of seventeen. He also had in-depth academic discussions with Cho Sŏng'gi (趙聖基) and Kim Ch'anhyŏp (金昌協). Additionally, h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Pak Sech'ae (朴世采) and Nam Kuman (南九萬) who were members of the Soron (少論) faction. In his early age, Yim perused not only the main text of the Confucian Classics but also the commentaries by Zhuxi and the minor commentaries to practice the idea of 'staying focused by forgetting distractions' (主一無適). At the same time, he also learned to write Pianwen (駢文, parallel prose) and read The Shiwen leiju (事文類聚, a classified collection of historical and literary texts). These sources provided him with a wealth of knowledge on 'Diangu' (典故, ancient events or stories in literature). He also composed several 'court literature' (館閣文) during his tenure as Chijekyo (知製教, Overseer of the Drafting of Royal Edicts) while holding various positions from Sŏnggyun'gwan taesasŏng (成均館 大司成, the chancellor of the National Academy) to Ijo ch'amŭi (吏曹參議, the third minister of Personnel). In this way, he established a distinct literary world that encompassed parallel prose, Civil Service Examination poetry (程式詩), and poetry expressing aspirations (述志詩) during his lifetime. He is considered a scholar who 'achieved the way through literature' (因文入道). This means that he primarily practiced Confucianism and used literature as a tool for his learning although he also paid attention to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Yim's understanding of 'gewu zhizhi' (格物致知, investigating things and extending knowledge) and xiaxue shangda (下達上學, study the lower to arrive at the higher), and how it is reflected in his literature, based on his literary works and interpretation of Confucian Classics, which are included in his collection Ch'ang'gyejip (滄溪集), as well as his record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his *Sinyu Illok* (辛酉日錄).

Key Words : Ch'ang'gye (滄溪) Yim Yŏng (林泳), Yi Tansang (李端相), Cho Sŏng'gi (趙聖基), Kim Ch'anghyŏp (金昌協), Pak Sech'ae (朴世采), Nam Kuman (南九萬), Yi yi (李珥), Cheng Fuxin (程復心), Chijekyo (知製教), court literature (館閣文), parallel prose (駢文), *Ŭisŭng'gi* (義勝記), achieving the way through literature (因文入道), *Lu Xuangong zouyi* (陸宣公奏議), *Sinyu illok* (辛酉日錄), *Toksŏ ch'arok* (讀書筭錄)

